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나 더 주죠

타이어 위치교환도
그냥 해줘요

지금은 타이어 렌탈시대

부담 없는 가격에 혜택이 이렇게나 많은데
타이어 렌탈 안하세요?
이제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넥스트레벨을
만나보세요!

공기압, 엔진오일, 배터리 등
차량 점검까지 짝 해주더라고

더 놀라운 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준다는 거죠!



4개 렌탈시
타이어 2개 추가 증정



타이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정기 방문점검 무상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타이어 4개 기준 월 5,800원

• CP672 215 55 17 / 등록비 5만원, 36개월 중형차량 계약 기준
제휴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1855-0100

넥스트레벨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2016 여름호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여름을 꿈꾸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회색 도심에서 여름 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고 푸른빛 산과 바다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자연 속에서 걷고
숨 쉬고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내던
삶의 맛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6년 여름호 통권 64호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경영관리팀 (055-370-4118)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노은주, 이예진, 장윤희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교정 이은실 표지 일러스트 LEMO(김수민)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두경프린텍

NEXEN zone

04 포커스 온 넥센
내일을 함께하는 넥센타이어

06 넥센 이슈 1
2016 한국영업부문 대졸공채 입문과정

08 넥센 이슈 2
‘넥스트레벨’
타이어 렌탈 시장 개척

10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14 넥센 그룹 탐방
와이어링 하네스 전문 기업
넥센테크

18 현장 스케치
타이어테크 용인점

22 팀 스토리
서울사무소 영업전략팀 7인의
여름 액티비티

26 보이스 토크
넥센인 앙케트 ‘경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28 처세 병법
경조사에 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
‘얼마가 최선입니까?’

32 드라이빙 퀴즈
헛갈릴 수 있는 운전, 교통법



표지 이야기

최상의 승차감으로 SUV의 품격을
완성하는 엔페라 RUV. 뛰어난 안정성, 마모
성능까지 향상된 프리미엄 타이어입니다.
이와 함께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 엔프리즈 A+8까지
갖춘다면 오프로드 드라이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PECIAL zone

34 스페셜 테마
오프로드를 달리다

36 스페셜 테마 1
뜨겁게 질주하다, 세계의 자동차 경주

40 스페셜 테마 2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현장에 가다

44 스페셜 테마 3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매력, N FERA SUR4

46 피플 인사이드
거침없는 질주, 카레이서 김현미 선수

50 멘토 앤 멘티
동부산지점 송현영 · 송상민 사우의 나무 공방 체험

54 주목 아이템
한 달에 한 번,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56 트래블 로드
여름 이야기 가득한 곳, 전남 장성

62 카 앤 타이어
주기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당신은 베테랑 운전자!

LIFE zone

66 넥센 요리사
맛과 영양이 뛰어난 버섯

72 넥센 대담
세 남자의 복싱 이야기

76 오 해피데이
Q Project TFT 신동혁 연구원 부부의
달맞이 고개 데이트

80 좋은 아빠 프로젝트
스킨십 게임, 놀이에 사랑을 더하다

84 아빠 탐구생활
PCR파트 조태수 사우 가족, 양산 공장 탐방기

88 문화 살롱
추억 안고 돌아온 복고 문화

90 직장인 백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PPT,
얼마나 잘 다루고 계신가요?

92 건강 돌보기
여름철 말 못 할 ‘땀 냄새’ 고민은 이제 끝!

94 머니 레시피
알면 ‘돈’ 되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98 사내 메신저
사보 참여 사우 후기

72
넥센 대담
세 남자의
복싱 이야기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0
멘토 앤 멘티

동부산지점 송현영 · 송상민 사우의 나무 공방 체험

2005~2016

2005 스포츠 마케팅의 첫 단추
국내 최초 프로 스노보드팀 '팀 넥센' 창단



2008



유럽 드리프트 레이싱팀
'TEAM NEXEN' 후원
드리프트 올스타 유러피언 시리즈에서
2012~13년 2년 연속 종합우승

2012

한·일 야구 경기 스폰서 참가
'넥센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2012' 타이틀 스폰서



제1회 넥센타이어 RV챔피언십 개막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으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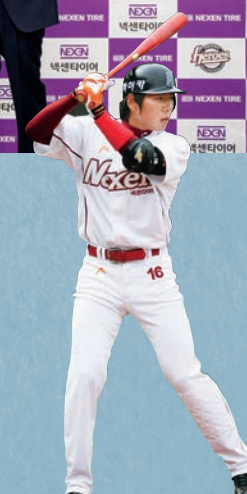


2006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2010 넥센히어로즈 출범(~현재)
프로야구단 '히어로즈'와 메인 스폰서십 체결



스포츠 마케팅 강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3개 팀(텍사스 레인저스, LA 에인절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후원,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파트너십, 미국 '포뮬러 드리프트'와 파트너십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6



초심을 잃지 않고
단합, 배려, 열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넥센타이어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



영업의 ‘판’을 바꾸다

2016 한국영업부문 대졸공채 입문과정

글 / 사진 권승희(인사기획팀)

5월 2~13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YBM연수원에서 ‘2016 한국영업부문 대졸공채 입문과정’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14명의 신입사원들은 35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재들. 2주간 진행된 대졸공채 입문과정을 따라가 보았다.

대졸공채 입문과정 1주 차는 영업부문장 황동진 부사장의 개강사로 시작됐다. 황 부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넥센타이어 입사 축하 인사와 더불어 신입사원의 기본 자세 및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덧붙였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중장기 전략,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주 차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 중 공휴일이었던 5월 5일에는 그간 쌓였던 긴장을 풀고 동기들과 단합할 수 있는 ‘넥센 올림픽’도 진행됐다.

2주 차 교육의 핵심은 ‘직무에 대한 이해’였다. 각자가 몸담을 넥센타이어 한국영업 조직도, 역할에 대한 강의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닐 영업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과 영업 전략을 공유해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선배들의 생생한 노하우를 듣는 기회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영업을 하려면 타이어에 대한 기본 상식 및 제조 공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14명의 신입사원들은 창녕 공장, 대구PG 등을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대졸공채 입문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자신이 그리는

넥센타이어의 미래를 UCC 동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하는 것. ‘우리가 넥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신입사원의 통통 튀는 발상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감상한 한국영업총괄 임금옥 전무는 “한국영업의 2016년 전략은 ‘판’을 바꾸는 일이다. 선배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필드에서 같이 열심히 뛰어줘야 그 판을 바꿀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동기들과의 단합, 서로에 대한 배려, 열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넥센타이어의 일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⑩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타이어와 자동차
관리를 지원하는
넥스트레벨.



타이어 업계, 변화의 바람이 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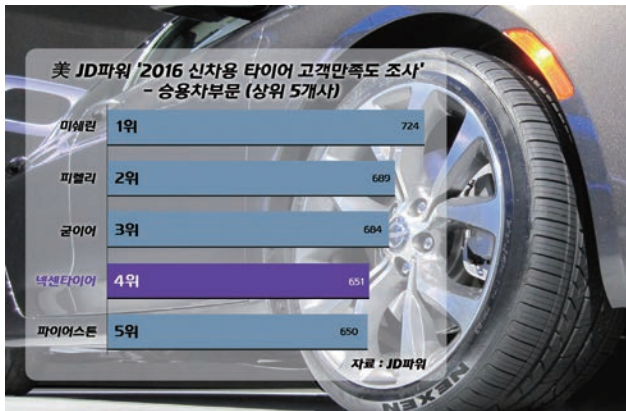
‘넥스트레벨’ 타이어 렌탈 시장 개척

글 한창운(영업관리팀) 사진 송상민(동부산지점)

2016년 국내 렌탈 시장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9.8% 성장한 2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됐다. 정수기, 사무장비 등에 한정되던 렌탈 시장이 자동차, 매트리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넥센타이어 역시 업계 최초로 신개념 렌탈서비스 ‘넥스트레벨’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론칭한 넥스트레벨은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넥센타이어 기업 철학에서 출발한 서비스.

고객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타이어와 자동차 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됐다. 합리적인 비용에 최고급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다는 소문이 온·오프라인으로 퍼지면서, 타이어 렌탈 서비스에 대한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여기에 전국 지사 및 지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현수막, 래핑 차량 광고, 킥돌이 캐릭터 등)이 더해져 렌탈 전문점 등록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와 MOU를 체결해 전국 1만 8,000여 곳의 카포스 회원사와 상호보완적 상생 및 서비스 망을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경인 지역 기아자동차 정비 서비스 네트워크인 오토큐와 업무협약, 현대자동차 정비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헨즈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기적으로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문판매 전문업체 SH생활건강과 업무제휴를 통해 사업다각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전국 방문점검 서비스 요원인 미스터 로디안을 배치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전국에 ‘넥스트레벨’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10개월을 맞은 넥스트레벨 렌탈서비스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타이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 갈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넥센타이어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⑩



美 'JD Power'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 4위

지난 3월 미국 JD Power가 발표한 '2016년 신차용 타이어 고객만족도 조사' 승용차 부문에서 넥센타이어가 12개 타이어 브랜드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2014년형 및 2015년형 차량 소유자 3만 1,977명을 대상으로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방법은 승용차, 트럭, 렉서리 자동차, 퍼포먼스 스포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타이어의 마모, 승차감, 접지력과 핸들링, 외관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CA사의 크라이슬러 '2017년형 퍼시피카'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사의 크라이슬러 '2017년형 퍼시피카(Pacifica)'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

'퍼시피카'는 미니밴의 원조라 불리는 '타운&컨트리'의 후속 모델로, 올해 초 북미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번 공급은 캐나다 원저 공장에서 생산되는 '퍼시피카' 차량에 5월부터 넥센타이어 '엔프리즈 RH7' 제품 18인치가 장착되며, 신차는 북미로 판매된다.

'엔프리즈 RH7'은 SUV·미니밴 등 다목적 차량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뛰어난 핸들링과 제동력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긴 트레드 수명을 갖춘 저소음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크라이슬러 200'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 '올 뉴 200'과 '램 3500', '램 프로마스터' 차량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의 OE 타이어 공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美 메이저리그 3개 팀과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미국 프로야구팀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2016년 시즌 메이저리그의 텍사스 레인저스, LA 에인절스 2개 구단과 후원을 지속하고, 새롭게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구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는 2014년부터 3년째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있으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는 이번 시즌 새롭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넥센타이어는 미국 프로야구팀과의 파트너십 체결 및 연장을 통해 3개 구단의 홈 구장에 회사 브랜드를 노출하고, 이미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LA 에인절스의 최지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선수의 활약을 통한 미디어 노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에서 3개 제품 수상

이탈리아의 'A 디자인 어워드' 운송수단 디자인(Vehicle, Mobility and Transportation Design) 부문에서 넥센타이어 3개 제품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A 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로, 매년 산업, 공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각 부문에서 디자인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2015~2016 어워드에는 93개 디자인 분야에 87개국이 참가했으며, 넥센타이어는 콘셉트 타이어인 '올 로드 트랜스폼(All Road Transform)'과 겨울용 '윈가드 스노우 G WH2'가 금상을, SUV용 '엔페라 RU1'이 은상을 수상했다.





독일 에센 타이어 전시회 '라이펜 2016' 참가

넥센타이어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에센(Essen)에서 열린 타이어 전시회 '라이펜(Reifen) 2016'에 참가했다.

라이펜은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의 타이어 및 관련 부품 전시회로, 타이어 업계의 혁신성, 개발 현황 및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44개국 675개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신제품, PCR, SUV · LT, WINTER 등 4개 카테고리 전시 공간을 구분해, 총 10개 패턴의 유럽 시장 전략 제품 및 프리미엄 신제품을 선보였다.

전시 부스는 260㎡ 규모의 복층 구조로 디자인하여 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으며,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확장을 콘셉트로 다이내믹한 조형감을 연출했다.

또한 해외 완성차 업체 공급 현황과 유명 전문지 테스트, 최첨단 설비의 공장 소개 동영상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유럽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신규 TV 광고 론칭

넥센타이어는 신개념 타이어 렌탈 서비스인 넥스트레벨의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 '넥스트레벨 혜택'편을 론칭했다.

'넥스트레벨 혜택'편은 2015년 9월 '넥스트레벨 론칭'편에 이은 넥스트레벨의 두 번째 TV 광고로, 넥스트레벨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해 이용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했다.

이번 TV 광고는 넥스트레벨 이용 고객이 렌탈 서비스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과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광고를 통해 강조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는 ▲타이어 4개를 렌탈할 경우, 비상시 고객 안전을 위해 타이어 2개를 추가 증정하는 서비스 ▲정기 방문점검 무상 서비스 ▲차량 점검 무상 서비스 ▲타이어 위치 교환 1회 무상 서비스 등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TV 광고를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타이어테크 라운지 및 마트 홍보 부스 등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개막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이 4월 24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6라운드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1년째를 맞이하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대회는 매회 200대가 넘는 차량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로, 올해부터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국제자동차연맹(FIA) 인증의 국제 공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며 그 위상이 높아졌다. 짧은 거리에서 승부를 겨루는 스프린트 레이싱, RV 부문과 승용 부문으로 나뉘는 랩 타임 주행으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의 TT클래스 등 총 10개 클래스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다. 6라운드 전 경기가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되는 것은 물론, SBS스포츠 채널을 통한 녹화 중계방송을 새롭게 추진하여 더 많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킷 체험, 레이싱가 택시타임, 레이싱 모델과의 포토타임 등의 모터스포츠 관련 행사 외에도 에어바운스, 세발자전거 경주, 푸드트럭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부터 바로 하자

넥센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넥센테크는 1994년 태형산업에 뿌리를 둔 자동차 부품, 특히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W/H) 제조업체다.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의 해외 이전이 추진되고 르노삼성, 지엠대우 등 외국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 넥센테크는 독창적 기술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대 업체인 일본의 야자키(YAZAKI)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선진 기술력을 확보했다.

넥센테크의 주력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의 전기 · 전자적 신호 체계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인체의 신경이나 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자동차마다 와이어링 하네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넥센테크는 신차가 만들어질 때마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공동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1995년 계약 이래 넥센테크의 주요 납품처는 르노삼성이다. SM3, SM5, SM7, QM5 등의 차량에 전량 단독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제품을 공급해왔다. 2014년 9월 말부터는 르노삼성차가 일본 닛산의 OEM(주문자상표 부착)으로 생산하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로그(Rogue)’에 들어가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다. 넥센테크는 국내 시장 공략은 물론 장기적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 연구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나가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본사 외에 2003년 중국 청도(靑島) 공장을 설립했으며, 탄탄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찾은 울산 공장 본사는 차별화된 품질 확보를 위한 넥센테크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와이어링 하네스 전문 기업

넥센테크

(주)넥센, KNN에 이어 〈헬로우 넥센〉이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자동차용 전장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넥센테크다. 창사 이래 부품 제조 한길만을 우직하게 달려온 넥센테크 울산 본사를 찾았다.

글 김수진 사진 이용관



**품질은 우리의 양심,
경쟁력은 우리의 생명**

자동차 산업은 각종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전자화 · 시스템화가 가속화되면서 철강 산업에서 전자 산업으로 분류된 지도 이미 오래된 일. 여기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변화는 진행 중에 있다. 제어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의 첨단화는 필연적으로 와이어링 하네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 한 대당 1,000회선이 넘는 회로를 제어 통신하는 회로 설계 기술이다. 자동차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인력이 1,000여 종의 부품을 직접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품질 검수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된다. 넥센테크는 작업을 분업화 · 세분화 · 전문화하고 작업 흐름을 매뉴얼화했다. 즉 작업 내용을 시스템에 올려 관리하는 휴먼엔지니어링 관리 방식을 도입해 불량 시스템을 통해 완벽히 추적한 것.

고객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넥센테크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량 생산을 제로에 가까운 신뢰도로 와이어링 하네스 업체로는 드물게 2003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2010년 ‘RENAULT QUALITY AWARD’ 대상 수상, 2013~14년 GM QUALITY AWARD(GM Korea Cruise Model 0 PPM 달성), 2015년 11월 SH MOBIS 우수업체 선정, 국내 TS16949, ISO14001 인증 및 중국 내 MOBIS SQ, IOS14001 TS16949 인증 획득 등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넥센테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무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해 고객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등과 세단, SUV, MPV 등 다양한 차종의 풀 세트 와이어 하네스 개발은 물론 전기차용 배터리팩 모듈을 생산 · 납품하고 있다. ‘고객 제일주의를 기본으로 한 무한 품질 및 국제 경쟁력 추구’라는 경영 방침 아래 고객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넥센테크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㉞





빈틈없는 서비스

타이어테크 용인점

2013년 10월 문을 연 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타이어테크 용인점. 단골 고객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김용기 대표에게 그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대표 김용기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용인점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실장 이상길

“진실한 마음과 친절함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주임 성한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업무에 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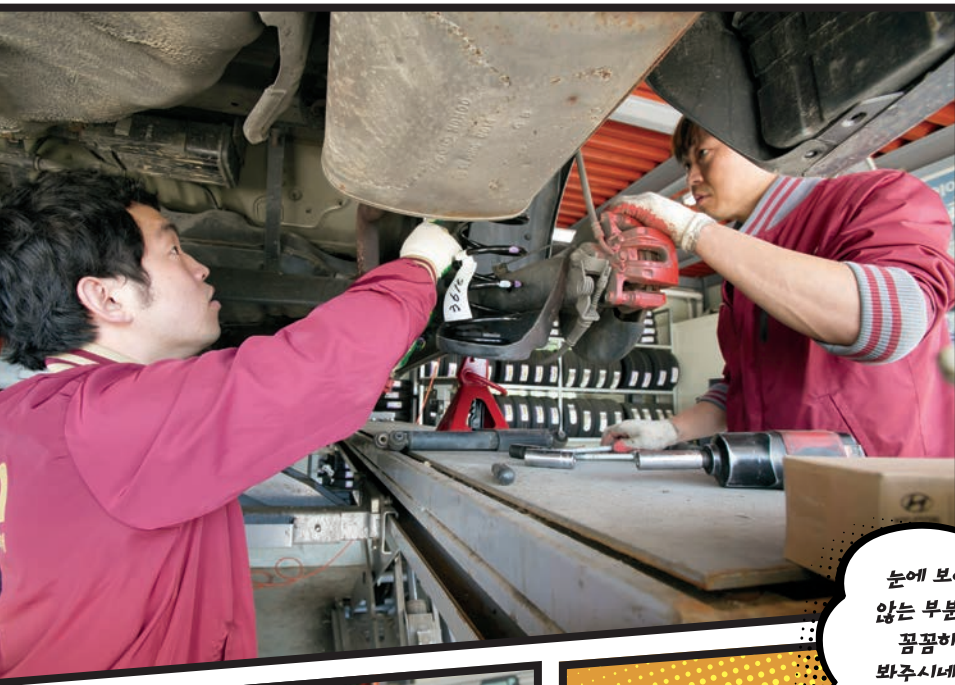


김용기 대표 : 안녕하세요!
타이어테크 용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기 대표입니다.
저희 타이어테크 용인점은 남보다
한발 더 뛰는 부지런함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실장 :
출근하자마자 전 직원이
모여 아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매출과 서비스에 대해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성한나 주임 : 매일 정비 전,
정비 후 청소를 꼼꼼히 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네요~!



김용기 대표 : 타이어 매장은 보통 타이어만 교체해주는 데 비해, 저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저희를 더 믿고 차를 맡기지요.

이상길 실장 : 고객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3D 휠얼라인먼트와 엔진오일 체크, 헤드램프 점검 등 차량의 다른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같은 제품은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성한나 주임 : 또 저희 용인점은 재고 사용에 있어서도 선입선출을 철저하게 합니다. 다양한 휠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지요.



친절한 직원들의 서비스 덕분에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31 문의 031-336-9576



김용기 대표 : 정비를 마친 후에도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셀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관리법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 재방문 시 추가 할인도 해드립니다.

성한나 주임 :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영업과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차량을 맡긴 후에 이뤄지는 정비 모습을 상세히 사진 찍어 업로드하니 더 신뢰가 간다며 단골 고객이 많이 생기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이상길 실장 :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에 고객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향을 파악한 뒤에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니 고객들이 크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김용기 대표 : 앞으로 단골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도 더 많이 늘어나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호점, 3호점 매장을 늘리는 것이 저희 용인점의 목표입니다.㉞

서울사무소 영업전략팀 7인의

스리, 투, 원, 번지!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하고 태양은 초여름인 듯 이글이글 타오르던 어느 뜨거운 봄날. 서울사무소 영업전략팀 7인이 청평 리버랜드로 가벼운 나들이를 떠났다. 햇볕은 강렬했지만 바람도 물도, 그리고 영업전략팀 모두의 마음까지 시원했던 날이다.

글 이지현 사진 맹석호 촬영협조 리버랜드 031-585-5526

팀이기에 예상치 못한 바도 아니었지만, 평소 실행하기 힘든 ‘평일 일탈’의 즐거움을 더 오랜 시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슬쩍 남긴 했다. 이런 취재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업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불금’을 즐기러 온 영업전략팀 사우들은 한창 들뜬 모습이다.

“저희 모두 번지점프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은근히 높는데 잘 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안전교육 후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점프 순서를 기다린다. 제일 먼저 점프대 위에 선 이형욱 사우.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여유만만하더니 뛰어내림에도 큰 망설임이 없다. 뒤이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내린 전형주 사우. 보트에 닿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는 기분이 어떠냐는 물음에 ‘어휴’, ‘어휴’ 하며 말을 잊지 못한다. 전형주 사수가 얼떨떨한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끄아아아~” 하는 비명이 들렸다.

어느 금요일 오후,
자유를 만끽하다

“따르릉~”

“안녕하세요! 팀 스토리 참여할

영업전략팀인데요. 오전에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체험을 오후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오전 10시 30분에 잡혔던 일정을 조율한 끝에 체험 당일 오후 3시 청평 리버랜드에서 영업전략팀을 만날 수 있었다. 사내에서 워낙 역할이 막중한 데다 바쁘다고 소문난





점프대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민정 사우가 어느새 뛰어내린 것. 보트에 실려 동동 떠온 김민정 사우의 말문이 터졌다.

“와, 대박. 진짜 대박!!”

표정 변화도 없이 평온하게 뛰어내린 임영민 사우와 슈퍼맨 포즈로 하늘을 날던 최규현 사우, 50m 상공에서 자녀에게 파이팅 넘치는 메시지를 외친 최상규 팀장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뛰고는 누구보다 편안한 포즈로 상륙한 구광태 사우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번지점프 미션 클리어! 사무실 밖에서 발견한 패기 가득한 모습에 서로가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다음 순서인 물썰매에 탑승했다. 팀원들이 시원하게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최 팀장은 물썰매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었다.

“아유, 한발 늦게 타는 바람에 자리가 애매해서 혼났네요. 하하하.”

뒤이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신상 땅콩 보트를 즐긴 후 최규현, 임영민, 전형주 사우가 웨이크보드에 도전했다. 물에 엮어지고 빠지길 여러 번, 이내 감 잡았는지 제법



긴 시간 물을 가르자 세 사우를 응원하는 팀원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진다. 바나나보트로 시원하게 오늘의 체험을 마무리한 후 모두 데크에 올랐다.

일당백! 호흡 척척, 영업전략팀

번지점프와 수상레저를 즐기는 내내 팀원 한명 한명마다 묵직한 중심이 느껴졌고, 서로를 향해 박수치고 환호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무척이나 자유분방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최상규 팀장부터 권위 의식에 점철된 무거운 분위기를 지양하고 있었다.

“저희 팀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책임감을 중시합니다. 팀원들이 이에 잘 따라주고 있고요, 굳이 시키거나 지적하지

이들이 넥센타이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일’, ‘네 일’ 구분 없는 책임감과 흐트러짐 없는 팀워크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

않아도 워낙 열심히 하는 데다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라 업무 성과도 좋아요. 저희가 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이유죠.” 영업전략팀은 한국영업총괄 내에서 정책, SCM(제품 공급), 제품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타사 대비 가격 조정, 대리점 공급가 관리 등의 가격 정책은 모두 영업전략팀이 담당한다. 이들이 핵심 부서로서 넥센타이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일’, ‘네 일’ 구분 없는 책임감과 흐트러짐 없는 팀워크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 “일할 때 저희는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가 없어요. 팀원들 모두 전반적인 분야를 순환하며 모든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채울 수 있고요.” 누군가는 과다하다고 여길 수 있는 업무량임에도 영업전략팀은 팀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3년 정도 맞춰온 호흡으로 수월하게

커버한다. 이야기하는 내내 팀원들에 대한 신뢰를 내비치던 최 팀장은 팀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민이 많다며 말을 잇는다. “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 제시라고 생각해요. 팀장이 팀원보다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업무 전반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야 팀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늘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물론 팀원들이 잘 따라와 주니 가능한 일이지만요.” 빠짐없이 잘 들어맞는 톱니바퀴처럼 호흡을 척척 맞추고 있는 영업전략팀. 이들은 넥센타이어의 업계 1위 등극을 목표로 탄탄하고 곧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팀의 역량이 단단한 이들이기에 목표 달성의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언제나 즐겁게 그리고 또렷하게 ‘일당백!’을 외치는 영업전략팀의 내일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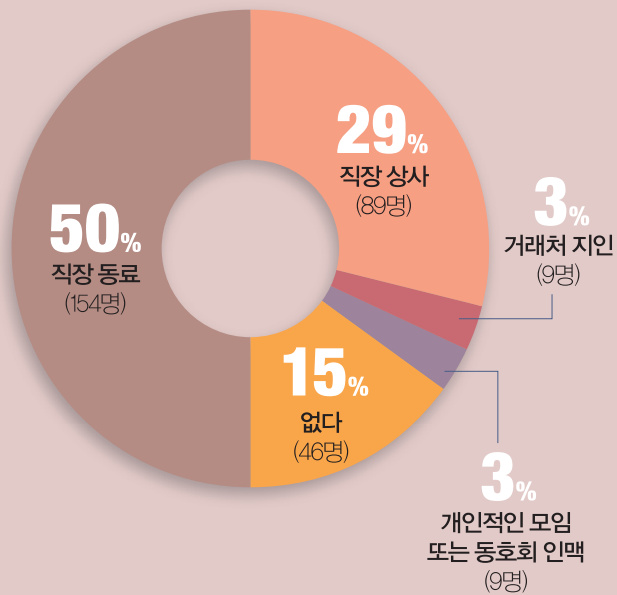


넥센인 앙케트 경조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매월 날아드는 청첩장과 각종 경조사 초대는 반갑고 기쁘지만, 마냥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넥센인들은 직장 내 경조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정리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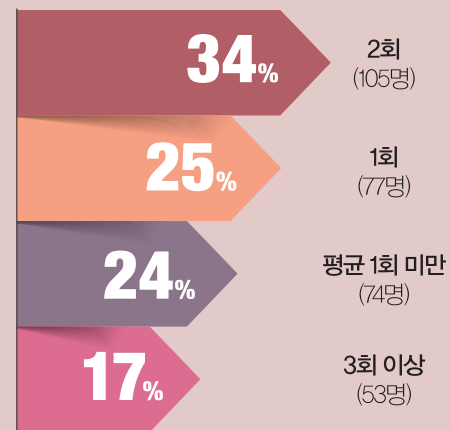
2016년 5월 10~17일 진행, 총 307명 참여

**직장 내
경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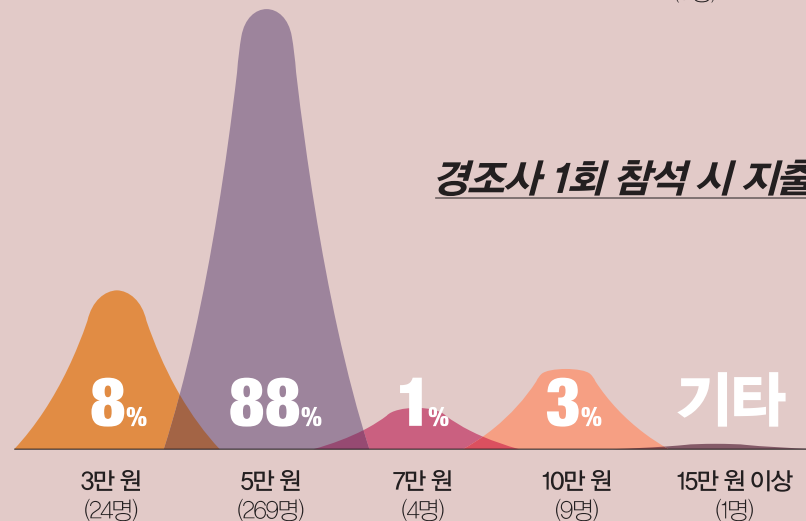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조금만 보낸 것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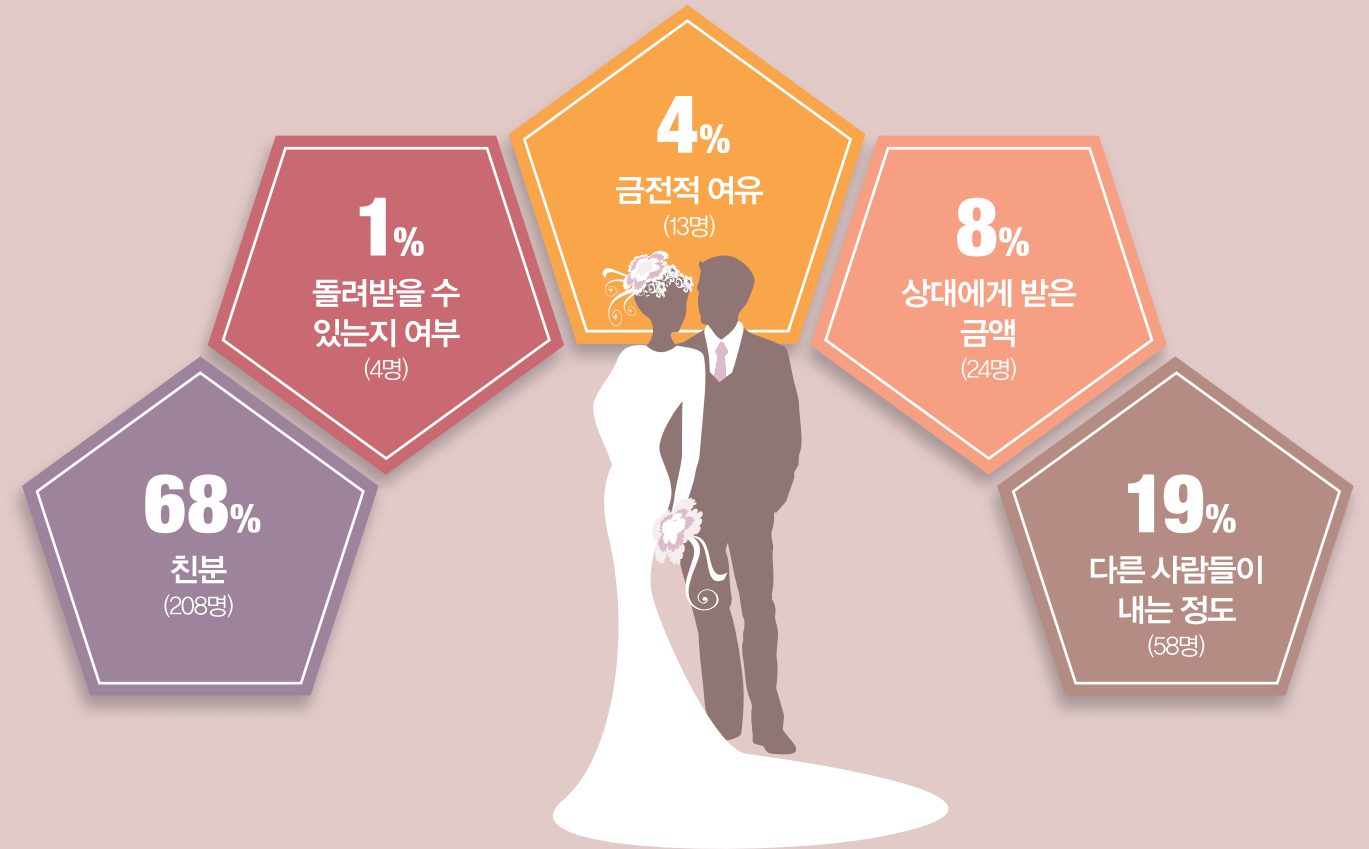
경조사 1회 참석 시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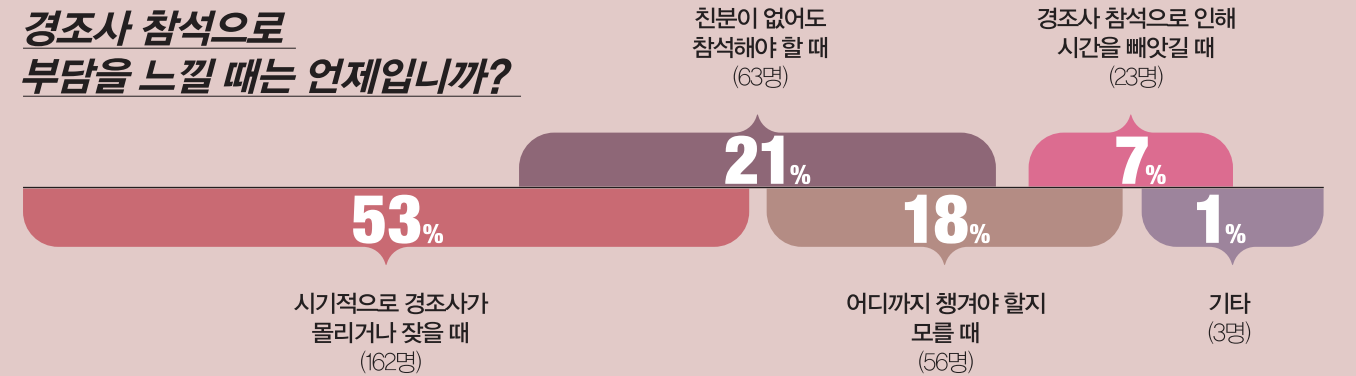
의견

- ▶ 홀수로 해야 된다면서 3만 원, 5만 원 다음은 왜 10만 원을 생각할까요?
- ▶ 마음만큼은 부자지만, 지갑이 가난하다는 점이 아쉬워요.
- ▶ 어차피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다고 생각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조사 참석으로
부담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기타

- ▶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안 좋을 때는 참석이 꺼려지네요.
- ▶ 다른 사람의 귀한 주말을 뺏는 것 같아 부르기 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조사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 ▶ 저는 초대할 경조사가 없는데, 경조사비를 계속 내야 할 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

경조사에 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



‘얼마’가 최선입니까?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경조사다. 경조사는 직장 동료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진한 동료애를 키워나가는 데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기쁨과 슬픔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누구나 넌?

선배나 동료의 결혼식에 얼마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랑 얼마나 친한지, 업무적으로 얼마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지는 기본이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거뒀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진다. 남들은 10만 원씩 하는데 나만 3만 원을 내는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간혹 3만 원 내고 식구들을 데려와 식권 3장 받아가는 ‘안 오느니만 못 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안 된다. 이처럼 축의금을 얼마 할 것인가는 대단히 복잡한 방정식이다. 조사는 더욱 어렵다. 당신이 어느 정도의 ‘가정교육’, ‘기본 개념’을 탑재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이 어려운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자.

1. 축의금 방정식 풀기

각종 경사 모임

살면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촌 조카의 돌잔치부터 직장 동료나 상사의 부모님 칠순 · 팔순 잔치까지 챙겨야 한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혼식 못지않게 고민되는 각종 경사 모임의 축의금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금액	금액 책정의 이유
직장 동료의 아들 · 딸 돌잔치	3만 원	참석하여 눈도장 찍었으니 반은 성공했다.
직장 동료의 둘째 아이 돌잔치	3만 원	이번이 마지막이다. 셋째는 안 와도 되지요?
애인의 형제 · 자매 아이의 돌잔치	5만 원	애인의 가족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친한 친구 아들 · 딸 돌잔치	10만 원	친구 사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다.
사촌 조카의 돌잔치	10만 원	이 정도를 내지 않으면 명절 때 사촌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다.
애인 부모님의 칠순 잔치	10만 원	앞으로 잘 봐달라는 무언의 표시다.
직장 동료의 부모님 칠순 잔치	5만 원	동료 부모님에게 좋은 이미지도 기억된다.
친구 부모님의 칠순 잔치	10만원	우리 부모님 때도 기대하겠다.
친척 어른의 칠순 잔치	5만 원	부모님도 하기 때문에 적당히 내면 된다.
거래 업체 직원의 부모님 칠순 잔치	하지 마라	굳이 시간 내서 갈 필요는 없다. 축하 메시지만 전해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결혼식

결혼식 장소를 먼저 탐색하자. 일반 결혼식장이 아닌 호텔에서 한다면 +2만 원이다. 3만 원을 계획했다면 호텔 밥값이 비싸다는 점을 참고하여 5만 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역학 관계다. 우리 부서 사람이라면 사원 · 대리급은 3만 원, 중간 관리자급은 5만 원으로 맞추자. 부서에서 따로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안해할 것 없다. 아래에는 상황별로 축의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았다. 일반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례	금액	금액 책정의 이유
같은 팀 동료	3만 원	원래 5만 원이지만, 팀에서 따로 경조사비를 챙겨주기에 무리할 것 없다.
늘 반갑게 인사하는 다른 팀 여직원	하지 마라	오해받는다. 그 팀에서 알아서 챙겨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래 업체 직원	3만 원	‘당신은 내 휴대폰 통화 목록에 있소’ 정도만 알릴 수 있는 금액이다.
전 직장에서 나를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던 상사	5만 원	그동안의 호의에 대한 과감한 성의 표시다.
일 년에 한두 번 보는 사촌 동생	10만 원	우리는 가족이다. 나에게 경조사가 생기면 똑같이 해주리라 믿는다.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엄마 친구 아들(딸)	하지 마라	엄마가 하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애인의 친한 친구	하지 마라	굳이 안 해도 된다.
대학교 때 단짝이었으나 만난 지 오래된 친구	하지 마라	이번에 보고 오랫동안 볼 일 없다.
전에 사귀었던 남자(여자)친구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의 형제 · 자매	50만 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든다.
직장 동료의 형제 · 자매	3만 원	공짜로 밥 먹기는 미안하니까 밥값은 낸다.
애인의 형제 · 자매	10만 원	결혼한 사이가 아닌 아직 애인 관계지만 훗날을 위해 성의를 표시한다.
친한 친구의 형제 · 자매	10만 원	친구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다.
친한 친구의 재혼	하지 마라	많이 하면 나중에 또 한다.
신랑 · 신부가 모두 친한 친구일 경우	각 5만 원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만을 위한 10만 원보다는 두 사람에게 각 5만 원씩 하는 게 낫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



2. 개념 있는 문상객 되기

장례식

경사를 함께하는 것은 크게 고민할 것이 없다. 상사나 동료의 아기 돌잔치, 결혼식은 즐겁게 자리에 참석하면 된다. 하지만 조사는 다르다. 장례식장은 개념이 제대로 탑재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부의금의 경우 금액의 크기보다는 ‘참석 여부’가 더 중요하다. 경사는 굳이 가지 않고 온라인 송금으로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장례식 같은 조사는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100만 원 부조금을 내는 것보다 더욱 값지다.

사례	금액	금액 책정의 이유
직장 동료의 부모님 상	5만 원	조의를 표하는 기본 금액이다.
직장 선배의 시부모(장인 · 장모) 상	3만 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거래 업체 직원의 부모님 상	3만 원	가까운 관계는 아니니 성의만 표한다.
거래 업체 직원의 시부모(장인 · 장모) 상	하지 마라	굳이 하지 않아도 홍보는 사람은 없다.
직장 동료의 장례식	10만 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생명보험회사도 있으니 이 정도가 적당하다.
직장 동료의 배우자 상	10만 원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정도다.
친한 친구의 부모님 상	10만 원	돈도 돈이지만 장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다.
연락이 뜸했던 고등학교 동창 부모님 상	하지 마라	연락한 사람도 별 기대 안 했을 것이다.
찾아뵙 지 10년이 넘은 고등학교 은사님 상	3만 원	‘은사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의 금액이다.
남자(여자)친구의 부모님 상	10만 원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힘이 될 것이다.
집안끼리 왕래가 있던 남자(여자)친구의 조부모 상	10만 원	금액 차이는 많이 두지 않는 편이 좋다.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나
고민되네.

3. 분향 방법

불교와 무교의 분향 방법

- ① 몸을 숙여 준비된 향에 불을 붙인다.
- ② 그 상태에서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끄고 향로에 꽂는다.
- ③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절을 두 번 하고 다시 반절한다.
- ④ 상주에게 조문한다.

기독교와 천주교 헌화 방법

- ① 준비된 국화꽃을 영정 앞에 둔다.
- ② 고개를 15도 숙이고 잠시 묵념한다.
- ③ 묵념이 끝나면 상주에게 조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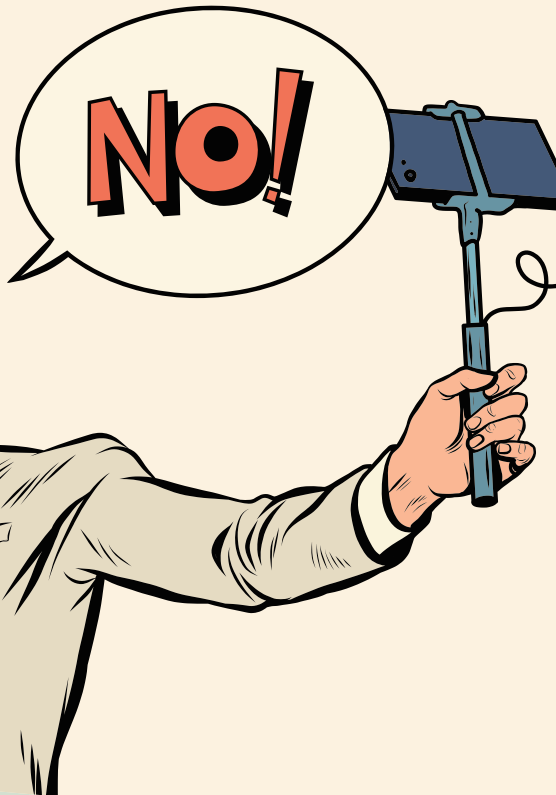


조문은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일반적인 조문은 상주와 그 가족에게 큰절과 반절을 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난다. 이 행동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라는 매우 고급스러운 마음의 표현 방법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므로 상주에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정도로 간단하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좋다. 이때 상주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플 따름입니다’ 정도로 답을 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조문객으로서 무난하게 조의를 표했다고 할 수 있다. 뒷걸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조문은 완성된다.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

- ① 오랜만에 만난 상주의 근황을 묻지 말자. 슬픈 일을 겪은 상주에게 건네는 일상 대화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 ②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세히 묻지 말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요?’라는 질문은 상주, 유족에게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상주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문상객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
- ③ 호상이라고 하지 말자. ‘호상이다’는 ‘적절하게 잘 돌아가셨네요’라는 뜻이다. 실제 호상이라 하더라도 유족에게는 가족을 잃은 큰 아픔이다.
- ④ 식사하면서 웃고 떠드는 일을 삼가자.
- ⑤ 건배하지 말자. 건배는 즐거운 장소에서 외치는 말임을 기억하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추가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건 바로 시도 때도 없는 ‘인증샷’이다. 함께 장례식장에 온 동료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다거나 장례식장에 왔다는 것 자체를 SNS에 올리는 것은 고인에 대한 대단한 실례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당신의 ‘좋아요’를 위해 활용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❷



헛갈릴 수 있는 운전, 교통법

Driving Quiz

매일매일 달라 알쏭달쏭한 상황에 놓이는 도로 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초보 운전자들은 물론 베테랑
운전자들에게도 지침이 되어줄 교통 법규를 퀴즈로 알아보자.
정리 양가희 자료협조 넥센타이어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xentire.korea

교통법규 위반 벌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경받을 수 없다?

Quiz 1

Answer

아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4시간)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1차선이
텅 비었다면 정속
주행해도 된다?

Answer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Quiz 3

Answer

범칙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고속도로에는 차종과 차체
크기에 따라 주행 차로가
정해져 있으며, 이 '지정
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4톤
이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대형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하면
벌금만 부과된다?

Quiz 2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한다?

Quiz 4

Answer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후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단,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Quiz 6

직진 ·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시 후방
차량에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

Answer

아니다
직진 신호로 변경되기 전 후방
차량이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줄 의무는
없다. 만약 길을 양보해줄 경우
신호 위반 혹은 지정 차로제
위반, 정지선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Quiz 5

U턴하는 차와 우회전
하는 차 중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nswer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가 우선이다
U턴은 보행 신호 또는 좌회전 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신호 조건에 맞춰 U턴을 했다면, U턴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단, 두 운전자
모두 신호에 맞춰 통행했을 경우 전용 신호기가
있는 쪽이 우선이다.㉮



평소 가볍게 생각하고
틀리기 쉬운 자동차 운전 상식.
드라이빙 퀴즈를 통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세요!



NEXEN ROAD

오프로드를 달리다

도전, 비전, 노력, 거친 숨소리, 뜨거운 땀방울, '오프로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거칠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이유는 더욱 강해지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다면, 온로드만 달려온 인생에 보다 큰 즐거움과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여러분의 오프로드를 응원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곳곳이 일궈낸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뜨겁게 질주하다 세계의 자동차 경주

매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지대를 넘나드는 경기부터 정해진 서킷 안에서 속도 경쟁으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까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질주'의 벽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자동차의 컨디션과 그것을 케어하는 인간의 능력이 일궈내는 승부의 세계. 거친 숨소리와 치열한 땀방울이 가득한 그 현장을 소개한다.

글 이지현 사진 Rainforest Challenge www.rainforest-challenge.com,
Formula Drift www.formulad.com

극적 한계에 도전

WRC World Rally Championship

WRC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오프로드 대회로 1973년에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멕시코, 핀란드, 베이징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4전의 경기가 진행되는 이 대회는 도로, 눈길, 숲길, 자갈밭, 고지대를 넘나드는 극한의 조건에서 치러져 가장 도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행 코스는 실제 기록이 집계되는 20~30km 정도의 SS(Special Stage)와 각 SS로 이동하는 구간인 900~1,000km의 RS(Road Stage), 2~3개의 SS마다 차량 경쟁비가 가능한 서비스 파크로 구성된다. 드라이버는 각 국가의 교통 법규를 준수해 RS를 통과하여 SS에 도착해야 하며, 모든 SS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과한 팀이 우승을 거머쥔다.

반복되는 코너 없이 거의 2,000km가 넘는 거친 구간을 3일 동안 달려야 하는 경기의 특성상 차량의 상태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정비 지원 체제와 주행 전 코스 특성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WRC에는 양산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고성능 차량이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곧 자동차 브랜드 간 자존심 대결이 되기도 한다.



Rainforest Challenge

죽음의 정글 랠리

RFC Rainforest Challenge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정글 랠리 RFC, 1997년 11월에 시작된 이 랠리는 '죽음의 레이스'라 불릴 만큼 극한의 도전과 모험심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참가자들은 열흘간 폭우와 진흙탕이 난무하는 약 2,500km의 정글을 누빈다. 참가 차량은 폐차 직전에 이르고 전체 참가자의 50% 이상이 탈락할 정도로 험난한 이 대회는 전 세계 4x4(사륜구동)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륜구동 랠리로 자리 잡았다. 경기는 WRC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동 구간과 특별 구간을 통과하며 속도를 기록하고 그 순서에 따라 차등 포인트를 부여해 순위를 매긴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움직이며, 정글에 입성하면 모든 것을 참가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기에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 경기 동안 차량을 정비하는 실력,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Co-driver)의 팀워크가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정글 랠리 참가자들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다이내믹한 코스만이 아니다. 정글의 무더위와 습도, 갑자기 닥치는 산사태, 온몸에 달려드는 벌레의 공격에도 맞서야 한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헤치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RFC. 올해 경기는 11월 24일부터 치러질 예정이다.



Challenge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경기

F1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세계 최대의 온로드 경기. 첫 대회는 1946년에, 첫 월드 챔피언십 시즌은 1950년에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다. 세계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며 FIA 규정에 맞는 경주용 자동차로 스피드를 겨룬다. F1 경기에 쓰이는 '포뮬러 카'는 배기량 1,600cc, 6기통 규격에 차체는 길고 낮으며 두꺼운 타이어가 밖으로 노출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최고 시속 320km/h, 최대 18,000rpm의 힘에 높은 코너링 스피드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로 대표되기도 한다.

경기는 호주, 바레인, 소치, 상하이, 바르셀로나 등 세계의 대륙을 넘나들며 진행되는데 '그랑프리'라 불리는 각 경주마다 순위별 승점(1위부터 10위까지 25, 18, 15, 12, 10, 8, 6, 4, 2, 1점)을 부여한다. 2010년부터 4년간 전남 영암에서 열렸던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국내 레이싱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는 3월 호주 그랑프리부터 시작으로 11월에 아랍에미리트 그랑프리까지 총 21번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모든 경기가 끝나면 승점을 합산해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자동차 제작팀) 부문을 나눠 월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는데, 드라이버 부문에서는 7번의 우승을 거머쥔 독일의 미하엘 슈마허가 부동의 1위를, 컨스트럭터 부문에서는 페라리, 맥라렌이 명문 팀의 양대 산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중 가장 볼거리가 많은 부분은 첫 코너와 피트스톱(급유·타이어 교체 등을 위한 정차) 순간이다. 출전 자동차의 규격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대부분 속도가 크게 붙지 않은 첫 코너에서 승부를 보려 하는데, 이때 충돌이나 스핀이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자동차가 피트인에 들어와 타이어 교체 후 나가기까지 3~4초 정도 되는 찰나의 순간 또한 관람객에게 또 다른 스릴과 재미를 선사한다.



자동차 경주계의 피겨 스케이팅
포뮬러 드리프트 Formula Drift

앞서 살펴본 F1처럼 흔히 모터스포츠라 불리는 경기가 속도로 경쟁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면 포뮬러 드리프트는 예술성으로 평가하는 '피겨 스케이팅'에 비유할 수 있다. 결승선 통과 순서 또는 구간 이동 속도를 종합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보편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와 달리 포뮬러 드리프트는 자동차의 드리프트(자동차가 최고 속도로 달리면서 턴할 때 옆으로 미끄러지며 코너를 도는) 기술을 기반으로 속도, 각도, 선회 등에 대한 연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승을 가리기 때문이다. 우선 예선 경기에서 한 대의 차량이 트랙을 돌면 몇 명의 심사위원이 감점제로 점수를 매긴다. 결선은 비슷한 점수대 드라이버 둘의 배틀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누가 더 실수 없이 화려하고 완벽하게 코너를 통과하느냐가 심사의 관건이다. 코너 벽을 코앞에 두고 드리프트 기술을 펼치므로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스릴과 차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 타이어 소리, 엔진의 굉음이 관객을 압도한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초 포뮬러 드리프트와 2년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세 명의 선수를 후원하기로 했다. 2015년 시즌 종합 1위를 달성한 토요타 사이언 소속 프레드릭 아스보 선수와 2위를 기록한 켄 구시 선수, 그리고 2년 연속 포뮬러 드리프트 챔피언인 락스타 에너지 소속 태너 파우스트 선수는 앞으로 엔페라 SUR4가 장착된 자동차로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안전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튜닝과 최상의 타이어 장착이 중요한 법. 최상의 그림 성능을 갖추고 극한 조건에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 넥센타이어 제품이 선수들의 기량을 펼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⑩





짜릿한 스피드 열전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현장에 가다

누구나 한 번쯤 짝 막힌
도로를 벗어나 마음껏
달려보고 싶을 때가 있다.
당신의 질주 본능을
일깨워줄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의 열기에
빠져보자.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자료협조 KSR
www.speedracing.co.kr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불꽃 튀는 명승부는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주말을 선사했다.

화려하게 래핑된 차들이 출발선에 정렬한다. 레이서들은 운전대를 움켜쥔 채 정면의 출발 신호가 울리기를 기다린다. 녹색이 점등되자마자 차량 20여 대가 일제히 지면을 박차고 달려나간다.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대회마다 200대가 넘는 차량의 참가가 이어지면서, 모터스포츠의 인기와 열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이하 넥센 스피드레이싱)'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며 4, 5, 6, 7, 9, 10월에 치러진다. 앞선 1라운드는 4월 2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다. 경기는 개조 상태와 차량의 출력에 따라 10개 클래스로 나뉘 펼쳐졌다. 클래스는 정해진 바퀴를 가장 빨리 달린 선수가 우승하는 스프린트 레이스와 자신의 기록에 도전하는 타임 트라이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시즌에는 넥센 스피드레이싱이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공인 대회로 지정되면서 아마추어와 프로 레이서들이 모두 출전했다. 특히 환경 보호를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차량에 배기가스 촉매 장치가 장착됐다. 이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중 최초로 시행하는 규정으로 레이스 대중화와 함께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전의 열기를 이어받아 5월 22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2라운드가 진행됐다. 부릉부릉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굉음의 엔진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자동차 마니아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바로 그 소리. 뜨거운 관심 속에 펼쳐진 불꽃 튀는 명승부는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주말을 선사했다. 이날 최고 클래스인 '엔페라 GT-300' 17랩의 결승전에서는 스타트와 동시에 5대의 차량이 연속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부상자 없이 현장은 신속하게 정리됐고 재경기가 이어졌다. 첫 출전에 우승까지 따낸 신인 선수와 베테랑 선수의 예상된 우승, 감탄을 자아내는 명장면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가 하루 종일 펼쳐졌다. 경기 외에도 관람객과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의 서킷 체험 주행, 드래그 타임 워치(F1 서킷 직선구간 최고 속도로 질주) 이벤트가 진행됐다. 어린이 세발자전거 레이스 이벤트와 피트스톱 챌린지, 레이싱 모델 포토타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한편 모터스포츠 대회는 타이어의 성능을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넥센타이어는 자사 브랜드를 알리고 경기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드립트, 독일 레이싱 팀까지 후원하는 등 모터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서킷 Inside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를 보다 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엔진 소리, 레이싱 결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느새 서킷의 세계에 빠져버린 마니아가 될지도.



코스 포스트 Course Post

경기 중인 드라이버에게 신호를 보내 위험을 알리거나 경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줄여서 포스트라고 부른다. 각 포스트에는 경기 상황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진행 요원들이 대기한다.



홈 스트레치 Home stretch

스탠드 라인 앞쪽의 서킷 직선 구간으로, 경주 차의 최고 속도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나온다. 홈 스트레이트(Home straight)라고도 불리며, 스타트 라인 반대쪽 직선 구간은 백 스트레치(Back stretch) 혹은 백 스트레이트(Back straight)다.



연석 Curb

레이싱 트랙 코너의 안쪽 도로와 바깥의 경계에 흰색과 빨간색으로 번갈아 칠해놓은 부분을 말한다. 연석은 능숙하게 다루면 랩 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구간인 동시에,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 쉬워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이기도 하다.



피트 Pit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차 수리와 타이어 점검 · 교환, 연료 보급 등을 하는 곳이다. 차를 정비하면서 경기 전략을 짜기도 한다. 차가 피트로 들어올 때는 피트인(Pit-in), 나갈 때는 피트아웃(Pit-out)이라고 한다.

그랜드 스탠드 Grand Stand

출발선과 결승선이 위치한 그랜드 스탠드에서는 경기의 주요 장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쪽의 피트 구역도 볼 수 있다. 또한 레이싱이 시작되기 직전의 긴장감과 결승선을 통과해 들어오는 레이서의 희열도 느낄 수 있다.



컨트롤 라인 Control Line

레이스 트랙에서 출발과 마무리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차가 이곳을 지날 때 컨트롤 라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시계 장치에 기록이 체크된다. 이 선에서 출발해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랩 타임(Lap time)이라고 부른다.

속도 마니아들의 꿈을 담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 만들어진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FIA(국제자동차연맹)가 인증한 우리나라 유일의 '그레이드 A' 규격 서킷이다. 2010년부터 4년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됐으며, 현재는 각종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총 길이는 5,615km이며 코너는 총 18개. 트랙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상설 서킷의 길이는 3,035km로 일반 경기에는 상설 서킷이 주로 이용되고, F1 경기 때는 모든 트랙을 이용한다. 현재 벨기에 스파, 영국 실버스톤, 일본 스즈카 서킷, 이탈리아 몬자 서킷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긴 F1 서킷이다. 레이서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총 55랩을 돌며 309km를 주행한다. 3개로 나뉜 각 구간 중 제1구간은 1,2km의 최장 직선이 포함된 구간으로 추월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제2구간은 고속 코너와 저속 코너가 고르게 배치돼 서킷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 제3구간은 머신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어야 하는 코스로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된다.㉞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로 181

문의 1588-3448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은 인제 스피디움



인제 스피디움은 FIA의 '그레이드 2' 규격을 획득해 F1을 제외한 모든 모터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다. 강원도 인제의 산악형 지형을 고려해 설계된 3,908km 서킷에서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인제 스피디움은 20개의 코너와 4m의 고저 차를 이용한 구간이 적절히 배치되어 레이서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넓은 트랙으로 이뤄진 코너는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킹(Breaking)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탈되지 않는다. 초보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이 인제 스피디움만의 특징이다.

위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문의 1644-3366

모터스포츠에서 자동차의 성능만큼이나
타이어의 접지력과 내구력은 중요한
요소다. 타이어 하나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타이어에 사용되는
고무, 코드 등의 재료는 점탄성체이기
때문에 주행 중 접지에 의한 변형과
복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이력
손실(Hysteresis Loss)에 의해 발열하게
된다. 그렇게 달궈질 때 타이어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 발열이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서킷용 레이싱
타이어의 우수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많은 레이서들은 핸들링 성능과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을 위해 폭이 넓은
타이어를 선호하기도 한다.
넥센타이어 '엔페라(N FERA) SUR4'는
레이싱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레이서
사이에선 이미 정평이 나 있다. 2014년
9월 정식 론칭에 앞서 일본 슈퍼GT에서
활약하는 밤바타쿠 선수가 테스트
드라이버로 참가해 서킷 주행에서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의 매력

N FERA SUR4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승차감과 안정성은 물론,
짜릿한 코너링 성능에 거친 오프로드를 마다하지
않는 자신감까지.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드라이빙
감각을 느끼고 싶은 운전자들에게 넥센타이어
'N FERA SUR4'는 최적의 드라이빙 파트너다.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레이싱 대회 최상위 클래스에 초점을 맞춘
만큼 '엔페라 SUR4'에는 넥센타이어의
첨단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고발열 폴리머를 적용해 그립 성능을
강화시켰으며 레이싱용 탄소 섬유를
사용해 발열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이
타이어의 특징이다. 여기에 고강도 비드
와이어와 초고경도 비드 필러를 적용하여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고강성 구조
설계를 통해 미세한 움직임도 잡아주는
탄탄한 사이드월, 이음새 없는 광도 캡
플라이, 고강도 보디 플라이, 고강력 스틸
벨트를 구현했다.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패턴 디자인은 독수리의 날카롭고 빠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공격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했으며, 20여 종의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5년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멋진 디자인만큼이나 레이싱에서 그
기술력과 성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2014 '전라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코리아 르망 내구레이스' KLM 200
클래스에서 넥센타이어 '엔페라 SUR4'를
장착한 팀이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에는 2016 미국 포뮬러
드리프트(Formula Drift)에 출전중인
프레드릭 아스보 선수가 '엔페라 SUR4'를
장착하고 3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대회에 '엔페라 SUR4'
타이어가 최상위 클래스용 공식 타이어로
지정되어 선수들의 기록 갱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㉞



길게 뻗은 서킷 위에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남자
선수들과 함께 당당하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김현미 선수를 만나
카레이싱의 매력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글 김지혜 사진 이용관



팀 그레디(Team GReddy) 김현미 선수

거침없는 질주, 그 신호탄을 쏘다



서킷에 첫발을 내딛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엔진 소리를 내는 경기장 한
편에 빨간색 미니 쿠퍼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화려하게 래핑된 차는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차 안에서 작은 체구의
팀 그레디 소속 김현미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경기에서 상대방 차에 부딪힌 사고로 인해 굳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에서
쓰라린 경험을 맛봤다. 조금 전 사고가 나서 잔뜩
찌그려진 차량이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라며 당장
출근을 걱정하는 김현미 선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여성 레이서이자 평범한 직장인이다. 게다가
카레이싱이나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회사의 6년 차
직장인이기도 하다. 토목과 체육교육을 전공했고
카레이싱을 즐기는 그녀는 금녀의 벽을 허무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 그녀에게 카레이서로서의 삶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스무 살에 면허를 땀지만 뒤늦게 차를 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카페에 가입했어요. 작년 10월에 팀
그레디가 후원하는 XTM 드라이빙 스쿨이 있다는
글을 보고 운전을 배우러 갔죠. 거기서 팀 그레디
한영호 감독님을 만났는데 ‘달리고 싶으면 경기장에
편하게 놀러 와’, ‘레이싱 차 한번 타보지 않을까?’,

‘우리 팀에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피가 끓더라고요.”

운전만 하고 올 줄 알았던 그녀의 손에
‘C 드라이빙 라이선스’가 쥐어졌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서 발급하는 이
자격증은 국내의 다양한 드라이빙 트랙을 사용
할 때 필요하다. 물론 이 자격증만 있다고 모두
서킷에서 경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서킷에서
몇 시간의 교육을 거쳐 서킷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나 카레이싱 경기에 나갈 수 있다.

“동호회 미니코리아에서 하는 1박 2일 미니 트랙
경기를 경험해본 후 카레이싱에 흠뻑 빠져버렸죠.
출발 전까지는 살짝 무섭다가도 트랙을 달리면
기분이 점점 좋아져요. 자동차를 정복하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짜릿하다니깐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카레이싱을 한다고 밝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든든한 지원을 보낸다. 그녀가 카레이싱 선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화려하게 래핑된
그녀의 차를 보고서도 카레이싱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다고 한다. 대신 꾸미는 걸 무척
좋아하냐는 말은 수없이 들어봤다며 웃음을
터뜨린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김현미 선수는 평일에는 회사에, 주말에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경기를 위해 5~6시간을 달려 영암과 인제를 오갔다. 이렇게 작은 체구 어디에 그런 체력이 숨어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랩 타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타임트라이얼 방식 경기인 TT200 클래스는 치열한 속도 경쟁이라기보다 자신만의 싸움이 관건이다. 첫 데뷔전의 목표는 '무사 완주'였다.

"1라운드에서 재미있게 타고 올 거라며 씩씩하게 출발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긴장했어요. 추월하는 차가 생기고 중간에 사고도 나면서 정신을 못 차렸죠. 지금도 끝인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혼자 사투를 벌이던 그때가 잊히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서킷을 누비기 때문에 차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녀 역시 연습

주행에서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카레이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길 법도 한데 오히려 자신을 더 채찍질한다.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추월할 때 참지 못하고 속도를 내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저 역시 질주 본능을 참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를 돌다가 스핀하고 말았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고 흠발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침착해지기 위해 '브레이크~ 엑셀~'이라고 소리 내 말하면서 운전하기도 해요."

뜨거운 엔진의 열로 달궈진 차 안, 불연 소재의 두꺼운 레이싱 슈트와 헬멧 등 장비를 착용한 레이서들은 쉴 새 없이 드라이빙 동작을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대와 경쟁하며 규정 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심폐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그리고 평정성 같은 기초 체력이 레이서의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체력이 뒷받침된 가운데 각종 레이싱 기술과 심리 기술로 승부수를 띄운다.

그런 탓에 여성 카레이서가 남성 카레이서들과 겨루는 것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른 종목과 달리 철저한 훈련을 통해 남녀가 함께 같은 선상에서 승부를 겨룰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카레이싱은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맛있는 스포츠예요.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은 체구가 작아 레이싱 슈츠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정도? 앞으로 여성 레이서가 많이 나와 함께 겨뤄봤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향해 질주하다

서킷 위에서의 질주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과 닮은 구석이 있다. 수없이 오르내리는 감정의 곡선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현미 선수는 카레이싱을 통해 배웠다. 팀 그레디 동료들은 가장 큰 지원군이 돼주고 있다.

"팀 그레디 레이서와 메카닉 등 모든 팀원들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생업 전선에서 열심히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서킷 위에서 열정을



철저한 훈련을 통해 남녀가 함께 같은 선상에서 승부를 겨룰 수 있다.

불태우조, 카레이싱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뭉쳐서 서로 서포트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 기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것이 갓 데뷔한 자만의 특권이라며 미소 짓는다. '여성'이라는 틀을 깨고 진정한 카레이서로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김현미 선수. 인생 좌우명인 '지금처럼 재밌게' 레이싱을 계속해 다른 클래스에도 도전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10년 후에는 스프린트 경기에 나가는 베테랑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같이 달리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고 추월하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쯤이면 노하우가 생겨서 저와 같은 여성 레이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레이서로 거듭나기 위한 질주는 이제부터다. 그녀의 멈출 줄 모르는 꿈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묻어 있는 서킷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¹⁰



동부산지점 송현영 · 송상민 사우

상상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부산 수영구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공방에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이 코끝에 전해진다. 공방의 세월이 만들어낸 손때 묻은 도구와 가구, 소품들을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무가 부리는 마법에 이끌려 공방 안으로 한 발짝 내딛었다.

글 김수진 사진 이용관 촬영협조 노리공방 051-752-5833

특별한 가구를 만들어드립니다

여느 날처럼 정신없는 하루였다. 밀려오는 고객의 전화와 업무로 쉴 틈 없는 마음에 작은 심표를 하나 주고 싶었다. 동부산지점 송현영 · 송상민 사우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의 재료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런 그들에게 목공을 권했다.

난생처음 공방에 와본다는 송현영 사우와 송상민 사우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공방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바쁘다. 특히 송현영 사우는 아이 방에 놓으면 좋을 듯한 침대와 목각 퍼즐 등을 살펴보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공방장에게 물어댔다. 목공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 싫지 않은 눈치. 친절하 설명과 함께 한 달 혹은 두 달 걸쳐 만들었다는 말에 두 사우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목공 초보자를 위한 맞춤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모르고.

오늘 두 남자가 도전할 가구는 '벽걸이 선반'이다. 작은 소품이나 책을 올려놓을 수 있어 실용적이며, 인테리어 효과도 만점이기 때문에 완성 후 뿌듯함도 두 배일 테다. 왕초보인 둘을 위해 주영균 공방장은 미리 목재를 재단해놓는 센스를 발휘했다. 그럼에도 선반 밑에 달 지지대를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는 것은 각자의

몫.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직소(Jigsaw) 앞에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평소 손재주가 없다고 토로하던 송현영 사우였지만,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절단 성공! 거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는 사포질에 이어 각자 마음에 드는 컬러의 우드 스테인을 선택해 꼼꼼하게 칠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초반에는 긴장감으로 말없이 작업에만 몰두했지만, 곧 두런두런 대화가 이어졌다. 회사 이야기, 일 이야기, 그리고 완성될 선반이 걸릴 장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노란색으로 칠한 선반에 뽀로로 인형을 올려놓으면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내가 잘 만들어 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송현영 사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떠들며 색을 칠하다 보니 나뭇결이 곱게 드러났다. 다음은 선반 하단에 걸고리가 들어갈 구멍을 드릴 프레스로 뚫는 작업이다.

"낮선 소리 때문에 두렵지만, 하다 보니 손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님, 아무래도 저 목공에 소질 있는 것 같죠?"

툭질할 때, 망치질할 때 늘 안전을 강조하는 공방장의 보살핌 아래 그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나사를 박아 선반을 조립하고, 목심과 사포질로 매끈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 · 후배를 만나다

“타이어 영업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입사하고
지점 발령 초기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서투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선배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그렇게 지내온 지 벌써
3년이네요.”

송현영· 송상민 사우가 근무하는 동부산지점 영업팀은
지점에 속해 있는 여러 대리점을 방문해 매출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프로모션 진행 업무도 담당한다.
신규 제휴 문의 및 계약 업무도 빼놓을 수 없는 일. 밀려드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다.

“상민이가 막내이긴 하지만, 지점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늘 뒤에서 묵묵하게 선배들을 돕고 있어요. 그
덕분에 선배들은 한결 편하게 업무를 해낼 수 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지점의 보물이라고나 할까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쑥스러운 듯 송상민 사우가 던지시



송현영 사우가 만든 벽걸이 선반의 색이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마움의 표시일 테다.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로 몸 고생, 마음 고생이 많다는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송상민 사우는 그런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며 즐겁게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로,
선후배로 남기를.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한결같은 자세로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선배들이 직접 경험했던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아요. 그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서너 개의 조각에 불과하던 나무가 이제 어엿한 선반
형태를 갖춰갔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끝내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영업인의 노고가 엿보였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완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겠죠.”

함께 호흡을 맞춰온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로, 선후배로 남기를.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한결같은 자세로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본다.㉞



“설렘 박스 배달왔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매달 선물이 든 박스가 회사나 집까지 배송된다면 어떨까? 넥센인에게 색다른 하루를 선물해줄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양가희 자료협조 펫박스 www.petbox.kr,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02-824-2291, 글로시데이즈 www.glossydays.kr, 엔플레버 www.foodplab.com, 웹즈데이커머스 www.bebetium.com

책상 위 미니 카페

오피스 서브스크립션 캡슐 커피

점심 식사 후 슬슬 밀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슬쩍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자판기 커피를 뽑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건 휴식 시간. 커피 머신과 함께 매달 오피스 서브스크립션 캡슐 커피를 받으면 책상 위에서도 한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에스프레소, 라테, 카푸치노 등 각자 취향에 맞는 30여 가지 최고급 원두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책상 위 미니 카페에서 동료들과 함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자.



펫과의 건강한 동거동락

지키미 펫박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는 사료와 간식, 안전할까?’ 먹이 때문에 고민 많은 펫족을 위해 지키미 펫박스가 해결사로 나선다. 펫 케어 라이프 매니저가 골라 담은 천연 재료 한방 수제 간식과 영양 만점 간식이라면 걱정 끝! 노화 예방, 피부 탄력에도 효과 만점인 사료와 간식으로 건강한 라이프를 만들어나가자. 반려동물 실종 방지를 위한 펫북 스마트 인식표도 함께 제공되니 안전한 동거동락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화장대 앞 아름다운 로망

글로시박스

거울 앞에 줄지어 놓인 수많은 신상 화장품은 못 여성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이것저것 테스트하거나 다양한 스타일의 화장을 연출하기 버겁다. 글로시박스는 이런 여성들에게 매달 뷰티 아이템 다섯 가지를 쥐어준다. 박스 타입별로 어떤 구성으로 이뤄졌는지 미리 볼 수 있어, 평소 갖고 싶었거나 궁금했던 제품을 고를 수 있다. 피부 관리도 하고 나만의 뷰티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여름호 사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사우 중 추천을 통해 '주목 아이템'에 소개된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스트레스 녹일 달달한 유혹

푸드플랩 스낵박스

‘스트레스(stressed)를 거꾸로 읽으면 디저트(desserts)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머리가 지끈거릴 때는 단 음식이 끌린다. 스낵박스는 편의점 과자에 질린 우리의 입 안을 프리미엄 디저트로 달달하게 채워준다. 푸드 큐레이터가 직접 고른 8~10가지 음료와 디저트를 한 아름 받아 들면 어느새 복잡한 마음은 녹아내리고 달콤한 일상이 찾아올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달콤함을 손 닿는 곳에 두고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



우리 아이 감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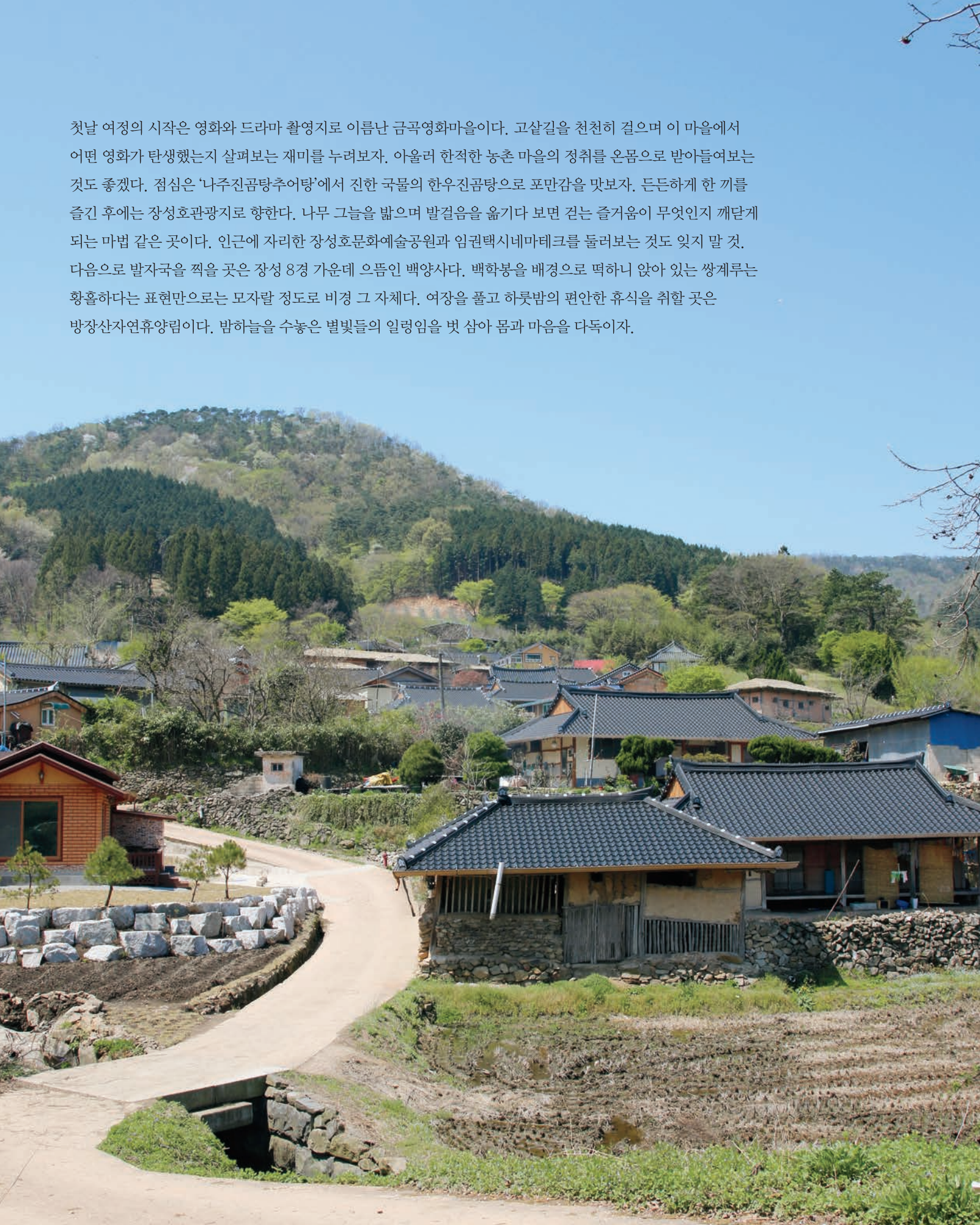
베베티움 티움박스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수많은 워킹맘. 워킹대디의 마음을 담았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어주자. 베베티움 티움박스에는 12~60개월 연령에 맞는 4권의 교육용 도서가 들어 있다. 전문위원 20명과 검증된 일반평가단 20명이 엄선했기에 서점에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이들의 감성과 생각은 업그레이드! ㉸

여름 이야기 가득한 곳 전남 장성

꽃잎이 떨어진 자리 곳곳에 초록물이 번지기 시작한다. 겨울이 지나는 동안
품어왔던 이야기들이 한적한 마을의 여름 숲에서 하나둘 펼쳐진다. 숲길을 따라
느릿느릿 걷다 보면 초록 물결이 뿜어내는 활기에 젖어든다. 여름의 푸르름을
눈에 담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날 수 있는 곳, 장성으로 가보자.

글 / 사진 박지원(여행 전문 기자)



첫날 여정의 시작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이름난 금곡영화마을이다. 고샅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 마을에서 어떤 영화가 탄생했는지 살펴보는 재미를 누리보자. 아울러 한적한 농촌 마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보는 것도 좋겠다. 점심은 '나주진곰탕추어탕'에서 진한 국물의 한우진곰탕으로 포만감을 맛보자. 든든하게 한 끼를 즐긴 후에는 장성호관광지로 향한다. 나무 그늘을 밟으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걷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마법 같은 곳이다. 인근에 자리한 장성호문화예술공원과 임권택시네마테크를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 것. 다음으로 발자국을 찍을 곳은 장성 8경 가운데 으뜸인 백양사다. 백학봉을 배경으로 띄하니 앉아 있는 쌍계루는 황홀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비경 그 자체다. 여장을 풀고 하룻밤의 편안한 휴식을 취할 곳은 방장산자연휴양림이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들의 일렁임을 벗 삼아 몸과 마음을 다독이자.



1st Day

서 두 르 지 않 고 천 천 히 걷 기

10:30 금곡영화마을

축령산이 품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라. 1950~60년대의 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마을은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왕초> 등 수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한 명소다. 마을길을 따라 걷다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 차가운 보리차 한잔 내어줄 것처럼 정겨운 미소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북일면 영화마을길 236-3

문의 061-390-7224

12:00 나주진곰탕추어탕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30년도 넘는 맛집. 무뎌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척 친절한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한우진곰탕은 깊고 담백한 국물과 입에서 녹는 고깃살의 맛이 일품이다. 정갈하게 차려 상에 오르는 밀반찬도 옆에서 거드니 고슬고슬한 쌀밥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사라진다.

가격 한우진곰탕 · 추어탕 · 김치찌개 7천 원, 돼지목살두루치기 9천 원

주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999

문의 061-392-8035

13:30 장성호관광지

질푸른 나무 사이에 놓인 목재 데크 위를 걸으면 심신이 기지개를 켜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는 미칠 수도 있으니 장성호의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자. 장성호관광지는 수상스키, 카누 등 수상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잉어, 쏘가리, 붕어 등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연중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낚시터도 있다.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591-4

문의 061-392-7248

15:30 백양사

백양사는 1400여 년 전 여환조사가 창건한 고찰로 백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마음을 깨끗하고 맑게 씻어줘 청량한 기운을 되찾기에 그만인 곳이다. 백미는 백암산 백학봉과 어우러진 쌍계루의 기막힌 경치다.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관람시간 09:00~19:00

입장료 어른 3천 원, 청소년 1천2백 원, 어린이 7백 원

주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문의 061-392-7502

17:30 방장산자연휴양림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 다양한 참나무류가 피톤치드 가득한 향기를 선사한다. 자연친화적인 통나무집을 비롯해 황토로 만든 객실이 있다. 취사에 필요한 물품도 모두 갖추고 있으니 세면도구만 챙기면 된다. 휴양림 내에는 매점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자.

숙박료 숲속의집 4만 6천 원부터, 산림문화휴양관 3만 4천 원부터

주소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방장로 353

문의 061-394-5523, huyang.go.kr



이튿날의 첫 번째 행선지는 전국적인 편백나무 열풍의 진원지인 축령산휴양림이다. 청명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편백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이곳에서 세상살이에 찌든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내자. 슬슬 배가 고파지면 추암관광농원으로 내달리자.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주인이 삼채떡갈비정식 등 삼채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입맛도 잡고 건강도 챙겼으니 장성의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숨결을 체감할 수 있는 홍길동테마파크로 가보자. 숫구치는 물줄기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재미가 쏠쏠한 분수대 등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다음 목적지는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필암서원이다. 서원을 기웃거리며 조선 중기의 학자 김인후의 자취를 느껴보자. 마지막 목적지는 평림댐 장미공원이다. 만개한 장미꽃 사이를 누비며 사진 찍기 안성맞춤인 이곳에서 알찬 장성 여행을 마무리하자.

2nd Day

장성의 명지 제대로 맛보기

10:00 축령산휴양림

“이곳은 99세 이상 흡연 지역입니다.” 위트 있는 문구가 시선을 붙드는 축령산휴양림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숲을 품고 있다. 편백림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각종 피부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축령산휴양림을 ‘치유의 숲’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문의 061-390-7224

12:00 추암관광농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음식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주인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삼채를 이용해 비빔밥, 떡갈비, 닭곰탕, 오리백숙, 춘달백숙 등 기막힌 요리를 내놓는다. 삼채는 혈액순환을 돕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격 삼채비빔밥 7천 원, 삼채떡갈비정식 1만 3천 원, 삼채춘달백숙 5만 원

주소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로 523-4

문의 061-394-4601

13:30 홍길동테마파크

소설 속 주인공으로 알려진 홍길동이 〈조선왕조실록〉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장성에서 실존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홍길동의 발자취를 더듬고자 탄생한 곳이 바로 홍길동테마파크다.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듯 홍길동 생가와 분수대 등을 둘러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자.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431

문의 061-394-7242

15:00 필암서원

호남 유교 문화의 상징인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고자 마련된 서원이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인조 2년(1624년)에 다시 지었다. 필암서원 입구에 들어선 확연루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인종이 하사한 목죽도의 판각도 만날 수 있다. 필암서원 지척에는 유물전시관이 따로 있으니 허투루 지나치지 말자.

관람시간 유물전시관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관람료 유물전시관 어른 5백 원, 청소년 3백 원, 어린이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문의 061-393-7270

16:00 평림댐 장미공원

은은한 장미꽃 향기로 가득한 평림댐 장미공원은 형형색색의 장미가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한다. 140여 종, 1만 4,000여 그루의 장미가 절정을 이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미공원 내부의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관찰하거나 차그마한 인공폭포인 ‘벽천’에 발을 담그고 사색에 잠길 수도 있어 매력적이다.㉓

관람시간 09:00~18:00 **입장료** 무료

주소 전남 장성군 삼계면 평림암치로 141

문의 061-390-7224



주기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당신은

베테랑 운전자!

차량 관리의 중요성

자동차가 발명된 이래 성능과 내구성은 점점 향상되었지만 차량의 주기적인 정비와 소모품 교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가지인 데다 점검 및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생소하고 복잡하다 보니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도 많다.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소모품 교체 시기를 놓치면 정상적인 주행에 악영향을 끼치며,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한 부품이 멸절한 부품의 고장까지 유발해 예상보다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운전을 안전하고 능숙하게 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차량 관리 방법(점검 및 소모품 교체)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능숙하고 안전한 드라이브 실력을 뽐내는 베테랑 운전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운전 비법은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다.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한 드라이브의 시작인 셈이다. 차량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박대경 (RE개발2팀)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 점검

통상적인 차량 관리 방법은 일정 주행거리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각 소모품마다 교체 시기를 설정하는 것이다. 차종별 취급설명서를 참고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운전 습관과 운행 여건 등에 따라 주행거리별 점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행거리별로 기준 점검을 할 때는 5,000km 단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차계부 사용 꿀팁

운전자가 주행거리별 교환 및 점검 항목에 대해 판단하고, 차량 가계부인 '차계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다 쉽게 차계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차계부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 점검 여부를 기록하거나 주기별 알람 기능 설정이 가능해 직접



주행거리별 교환 및 점검 사항

상시 점검 및 교환 항목

등화류(전조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미등), 와이퍼, 워셔액, 타이어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
- 도로교통법 준수(야간 주행 시 차폭등, 미등 점등) 및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상시 점검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교환한다.

주행거리 '5,000km'마다

▶ **교환**: 엔진 오일, 엔진 오일 필터, 흡기 필터
- 엔진 오일 및 필터의 경우, 오일 점도에 따라 방문 정비소 정비사가 판단해 2,000~5,000km 추가 주행 후 교환 주기 설정 가능
- 흡기 필터의 경우, 오염도가 심하지 않으면 1만 km 주기로 교체 가능
▶ **점검**: 냉각 장치 및 호스, 각종 오일의 누유 여부

주행거리 '1만 km'마다

▶ **교환**: 타이어 위치 교환
▶ **점검**: 냉각수, 자동 변속기(오일 포함),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주행거리 '2만 km'마다

▶ **교환**: 브레이크 오일, 점화 플러그(휘발유 차량)
▶ **점검**: 브레이크(디스크 · 캘리퍼 · 라이닝 · 드럼), 현가장치(볼조인트), 인젝터(경유 차량)

주행거리 '4만 km'마다

▶ **교환**: 연료 필터, 냉각수, 수동 및 자동 미션 오일, 타이어
▶ **점검**: 각종 케이블 및 유압 호스, 흡기 클리닝, 머플러, 휠 얼라이먼트

주행거리 '5만 km'마다

▶ **점검**: 현가장치(서스펜션부), 조향장치(파워 스티어링부), 전 · 후륜 구동축

주행거리 '10만 km'마다

▶ **교환**: 타이밍 벨트(일부 차종)
▶ **점검**: 엔진 마운트, 부싱류, 냉각펌프, 연료펌프 등



주기적인 차량 점검은 차량의 안전 및 주행 성능을 유지시켜준다. 안전을 위한 차량 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작성하는 차계부보다 관리가 편리하다. 둘째, 단골 정비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 정비소에서 차량에 대한 교환 및 점검 이력을 전산 등록해 놓는다. 정비소를 자주 방문하면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차량의 상태나 소모품 교환 주기 등을 관리해준다. 또한 단골이라는 이유로 더욱 꼼꼼하게 차량을 점검해주거나 경정비에 대해서는 무상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일석이조다. 주기적인 차량 점검은 차량의 안전 성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행 성능도 유지시켜준다. 차량의 수명 또한 연장되어 잠재적인 이익으로 작용한다. 향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대한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차량 관리 팁

1. 에어컨 필터 교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 필터는 계절마다 갈아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최소 봄 · 가을에 1회씩, 연간 2회 갈아준다. 에어컨 필터는 교체가 간단하니 인터넷에서 주문 후 직접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제조업체별로 필터의 기본적인 성능은 비슷하나 미세먼지 제거율, 유해가스 제거율, 항균율 등의 차이를 비교해 목적에 맞는 필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앞 유리 이물질 제거

앞 유리에 먼지가 많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 이를 닦아내려고 무작정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오히려 이물질이 와이퍼와 앞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다. 이는 야간에 난반사를 유발하고, 우천 시에는 아무리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잘 안 보이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와이퍼를 작동하기 전 워셔액을 뿌려 유리의 이물질을 씻어내거나 직접 앞 유리를 닦아내야 한다.

3. 봄철 차량 관리

▶ 겨울 동안 사용된 제설용 염화칼슘은 차량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하부 세차가 가능한 세차장을 이용해 염화칼슘을 깨끗이 씻어낸다.
▶ 스노 타이어를 장착 중이라면, 사계절 혹은 여름용 타이어로 교체해야 타이어의 빠른 마모를 막을 수 있다. 마모가 적게 된 스노 타이어는 돌아오는 겨울에 상태 점검 후 재사용할 수 있다.

4. 여름철 차량 관리

▶ 여름철 피약벌에 차량을 장시간 세워 놓는다면, 차량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같은 전자기기의 고장을 초래한다. 또한 가죽 내장재 및 플라스틱 몰딩 등이 변형 및 변색되며, 접착제가 녹아내려 부착물의 들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바깥에 주차해야 할 때는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활용해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어야 한다.
▶ 에어컨 작동 시 송풍구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차량이 있다. 방향제나 에어컨 냄새 제거제 등을 써보지만 잠시 효과를 볼 뿐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냄새가 나는 원인은 에어컨 작동 시 차가운 공기를 생성시키는 증발기(에바포레이터) 표면에 맺히는 응축수에 있다. 응축수에 번식한 세균이 부패해 냄새가 난다. 해결 방법은 에바클리닝이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직접 시공할 수도 있으나, 자칫 잘못 시공하면 차량의 전자기기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므로 인근 정비소에서 숙련자에게 시공받을 것을 추천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지 도착 2~3분 전에 A/C 버튼을 눌러 에어컨만 끄고 외기 모드로 변경한 후 송풍 모드에서 바람을 강하게 순환시켜 응축수를 증발시키는 것이다.📌





NEXEN COOK

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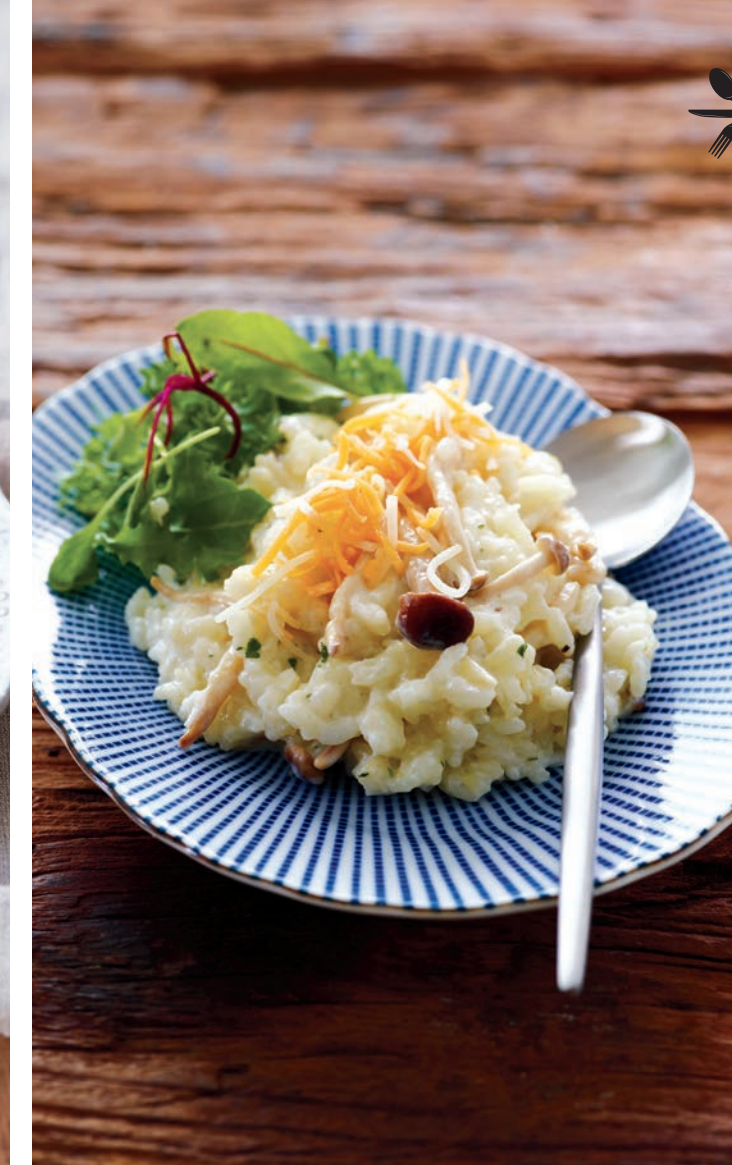
버섯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음식 재료로 인기가 높다.
버섯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식물성 식이섬유소가 많아 비만 방지에 효과적이며,
칼로리가 매우 낮고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 적합하다.
특유의 향긋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버섯.
맛과 향에 따라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는
버섯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버섯 요리 레시피

조리하기 간편하며 맛과 영양도 뛰어난 버섯.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해 밥상의 단골 메뉴로
꼽힌다. 생으로 먹기도 하고 굽거나
볶아 먹어도 별미인
버섯 요리를 당신의 식탁 위에 올려보자.

자료협조 용동희 <이지 쿂� 버섯>
씨아프레스



버섯 동그랑땡

요리 재료

갓은 버섯 한 줌, 두부 1/4모, 다진 돼지고기 1/2컵, 다진 양파 3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 · 후추 · 밀가루 · 오일 약간씩, 달걀 2개

요리 과정

- 1 버섯을 가볍게 데쳐 물기를 제거한 후 곱게 다진다.
- 2 두부를 칼등으로 으깨 물기를 제거한다.
- 3 손질한 두부, 버섯과 다진 돼지고기, 양파, 마늘, 소금, 후추를 섞는다.
- 4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밀가루를 묻힌 후 달걀물로 옷을 입힌다.
- 5 오일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 낸다.

TIP

동그란 모양을 내기 어렵다면 랩으로 김밥을 말 듯 말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자. 10분 정도 지난 후 꺼내서 썰면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버섯 장아찌

요리 재료

느타리버섯 혹은 팽이버섯 3줌,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통후추 10알, 간장 · 물 1/2컵씩, 식초 · 설탕 1/4컵씩

요리 과정

- 1 버섯 밑동을 손질해 저장용기에 담는다.
- 2 버섯을 작은 크기로 썰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통후추와 함께 저장용기에 담는다.
- 3 간장, 물, 식초, 설탕을 냄비에 넣어 한소끔 끓인 후 식힌다.
- 4 버섯 위에 ③의 장아찌물을 붓고 이틀간 냉장 보관한 후 먹는다.

TIP

바로 먹어도 좋지만 숙성하는 동안 2회 정도 절임물을 다시 끓여주면 오랫동안 보관 가능하다.

버섯 오믈렛

요리 재료

양송이버섯 3개, 느타리버섯 1/2줌, 시금치 1/4단, 달걀 2개, 우유 · 다진 양파 3큰술씩, 소금 · 오일 약간씩, 피자 치즈 한 줌

요리 과정

- 1 버섯은 각각 곱게 다지고, 시금치는 3cm 정도 길이로 자른다.
- 2 달걀에 우유를 넣고 소금으로 간하여 풀어준다.
- 3 오일을 두른 팬에 다진 양파를 넣고 볶다가 다진 버섯과 시금치를 넣어 볶는다.
- 4 팬에 달걀물을 넣어 반숙으로 스크램블하다가 팬 가장자리를 이용해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다.
- 5 피자 치즈를 올리고 남은 열로 식힌다.

TIP

부드러운 오믈렛을 만들고 싶다면 채에 한 번 거른 달걀물을 사용한다.

버섯 리소토

요리 재료

느타리버섯 한 줌, 오일 · 소금 · 후추 약간씩,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양파 · 다진 감자 3큰술씩, 밥 2/3공기, 생크림 1 · 2컵, 우유 1/2컵씩, 모차렐라 치즈 적당량, 파르메산 치즈가루 1큰술

요리 과정

- 1 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오일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다.
- 2 양파와 감자를 버섯과 함께 넣어 익힌 뒤, 밥을 넣어 다시 볶는다.
- 3 생크림과 우유를 팬에 부어 끓인 후 소금, 후추, 파르메산 치즈가루로 간한다.
- 4 소스를 조리 후 모차렐라 치즈를 올려 낸다.

TIP

조리 마지막 단계에 버터를 약간 녹여 넣으면 리소토의 풍미와 빛깔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버섯 요리 맛집

쫄깃한 식감과 영양까지 풍부
한 버섯 요리를 먹고 싶다면
다음 맛집으로 달려가자.

글 김지혜 사진 하해네 놀이터, 양진모,
양보윤, 박주임, 준의 세상 사는 이야기



매일 농장에서 공수한 신선함 버섯잔치집

메뉴 큰버섯 샤브샤브 1만 5천 원,
자연송이 전골 2만 원, 통버섯 불낙전골
1만 3천 원, 자연송이 지리탕 1만 원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2
성원빌딩
문의 02-470-0092
영업시간 11:00~23:00

TV 여러 맛집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다녀갔을 만큼 유명한 버섯잔치집.
이곳의 대표 메뉴는 2가지 육수가 제공되는 반반 샤브샤브다. 인원수대
로 주문하면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칼국수는 무한 리필로 제공된다.
포천의 직영 농장에서 친환경 무공해로 기른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버
섯, 새송이버섯을 생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집의 자랑이다. 짹짹
찢은 버섯을 기름소금장에 찍어 한입 베어 물면 즙과 함께 향긋한 향이
입안에 계속 맴돈다.



전통을 이어온 건강한 밥상 청주버섯

메뉴 생버섯전골 1만 2천 원, 버섯불고기전골 1만
2천 원, 버섯찌개 1만 1천 원, 버섯비빔밥 8천 원
위치 대구시 중구 동성로 36-6 근린생활시설
문의 053-425-5668
영업시간 12:00~21:00

38년째 한곳에서 오직 버섯만 요리하고 있는 청
주버섯은 대구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명 맛집이
다. 매일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른 고품질 버섯을
사용하는 것이 맛의 비결. 이곳에서는 버섯 마니
아라면 기대해도 좋을 다양한 종류의 버섯 요리
를 맛볼 수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버섯전골, 건표
고버섯의 진한 맛과 소등뼈 육수의 개운한 맛이
어우러진 버섯찌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
게 튀겨낸 버섯탕수 등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
껴지는 밥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숙성한 반죽에 더해진 향긋함 피자피케이션 자하

메뉴 타르투파타 2만 3천 원, 비트 샐러드 1만 4천 원, 라구 블루멘탈 스파게티
1만 9천 원
위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7길 34
문의 02-737-1355
영업시간 12:00~15:00, 18:00~22:00, 일요일 11:00~21:00

이탈리아어로 '송로버섯으로 맛을 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르투파타(Tartufata) 피자는 정통 이탈리아산 카푸토(Caputo)
밀가루를 사용해 만들었다. 오븐에 넣어 잠시 건조시킨 느타리버
섯과 표고버섯은 더욱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건조된 버섯
을 피자에 한가득 올려 생모차렐라 치즈와 함께 화덕에서 굽는
다. 화이트 트러플 오일로 마무리한 피자는 버섯 향이 더욱 풍성
하게 느껴질 것이다. 야생 효모 발효로 만든 피자 도우는 자극적
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아낌없이 담아낸 영양식 황토기와집

메뉴 해물버섯파전 1만 2천 원, 해물손칼국수 7천 원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101
문의 042-936-0001
영업시간 11:00~21:00

칼국수가 메인 요리지만 가게 안은 파전을 먹기 위해 찾아온 손
님들로 북적거린다.
표고버섯이 파전을 덮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한가득 올
린 해물버섯파전이 별미 중의 별미. 먹기도 전에 눈이 먼저 호강
하는 해물버섯파전에는 말린 표고버섯과 신선한 해물, 아삭한 채
소가 가득 담겨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파
전 익는 소리는 먹을수록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㉞



생산2팀 PCR파트 김정훈

제일 젊은 피답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두 선배를 압도한다. 복싱은 균형 잡힌 체력과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데 최고라며 극찬을 늘어놓는 복싱 마니아.



생산2팀 PCR파트 박성태

넥센타이어 PCR파트에 복싱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셋 중 제일 오래, 제일 먼저 복싱을 시작했지만 웨일인지 체중 감량 효과는 신통치 않다고 토로한다.



생산2팀 PCR파트 정창욱

스킨스쿠버에서 복싱에 이르기까지 알고 보니 운동 마니아. 근무 전후 복싱장에 들러 2~3시간 땀을 쫓 빼고 나면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세 남자의 복싱 이야기

세상을 향해 날리는 한 방

복싱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 사각의 링 안에서 서로 주먹과 주먹을 맞대고 몸을 부딪치며 힘을 겨룬다. 궁극적으로 상대를 쓰러트려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이 야생적인 운동의 무엇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을까? 3교대로 바쁜 와중에도 복싱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세 남자를 만났다.

글 김수진 사진 이용관

에디터: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복싱장은 처음 와보는데 정말 멋진 곳이에요. 복싱장 하면 왠지 어둡고 낯새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편견에 불과한 것 같네요. 세 분은 이 멋진 공간을 어떻게 알고 모여서 함께 배우게 된 건가요?

박성태: 사실 저는 복싱 배운 지 몇 년 됐어요. 여기 계신 관장님 따라 다른 체육관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지 한 2년? 제가 복싱을 한다고 이야기하니 주변에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중 여기 있는 정창욱, 김정훈 사우가 선뜻 따라나선 거죠. 셋이 시간이 맞을 때는 오늘처럼 함께 운동하러 오기도 해요.

김정훈: 예전부터 복싱에 관심이 많았는데, 운동량이 엄청나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형님이 한다고 하니 '그럼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무슨 운동이든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정창욱: 저희 팀이 1일 3교대로 근무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는 것이 참 버겁더라고요. 체력도 잘 받쳐주지 않고요. 저 역시 예전부터 복싱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용기가 났어요.

박성태: 복싱 하면 남자들의 로망이죠. 하하하.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복싱인 거죠.

에디터 : 이 기사를 읽은 넥센타이어 사우들 중 상당수가 '그럼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복싱의 매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정훈: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82kg에 처음 복싱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75~76kg 정도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어요. 정말 다이어트에 복싱이 직빵인 것 같아요.



에디터: 얼마 만에 그렇게 빠졌나요?

김정훈: 음... 한 달 하니까 금방 빠지던데요?

에디터: 한 달이요?

김정훈: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한재아가 복싱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운동량이 굉장한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복싱 동작 중 거의 80%가 유산소,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정창욱: 일단 복싱을 하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몸에 근육도 붙고 또... 사실 근무를 하고 나면 몸이 무척 빠르거든요. 어깨랑 등이 많이 뭉치는 편이었는데 복싱하고 나서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박성태: 의도하진 않았지만, 체력이 좋아지니 작업 생산량이 늘어나네요. 하하하. 그것 말고도 땀을 흘리고 난 뒤 느껴지는 성취감도 크고요,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자심감도 더 생겼어요.

에디터: 이렇게 좋은 운동을 세 분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박성태: 대부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복싱장 오면 이렇게 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덩달아 체육관 홍보도 해주고~ 하하.

에디터: 이 기회에 사내 복싱 동호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요?

정창욱: 본인이 하고 싶으면 알아서 다 하게 돼요. 그만큼 매력적인 운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남들 하는 것만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따라 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쉽게 포기해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한번 해본 순간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절대 못 헤어날걸요?

에디터: 함께 땀 흘리면서 운동하다 보면 사이가 깊어진다고 하던데, 세 분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김정훈: 성태 형님은 남자 중에 남자죠!

박성태: (몹시 쑥스러워하며) 하하하하하.

김정훈: 어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님은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는 스타일이예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점이죠. (옆으로 고개를 돌리며) 창욱이 형님도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성격이에요.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정말 편한데, 자꾸 운동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하하. 도전하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진 두 형님입니다. (이거 복싱 화인데, 성태 형님한테 선물받았습니다. ㅋㅋ 열심히 하라고~)

박성태: 우리 동생은 운동을 좋아해요. 헬스, 자전거, 유도 등등. 운동 좋아하는 착하고 예쁜 동생이라고 표현하면 되까요?

정창욱: 맞아요. 정훈이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 저도 덩달아 따라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자전거 동호회도 그렇게 만들어졌는걸요. 아, 참고로 저도 글러브 선물받았어요. 하하.

에디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세 분 모두 진정한 운동 마니아로 인정! 세 분이 스파링하면 잘하겠어요?

(지나가던 관장님이 불쑥) 못해요! 아직 갈하려면 멀었죠~ 그런데 재미있어하니까 보기 좋아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김정훈: 아까 형님이 말했듯이 교대근무, 맞벌이 등의 이유로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시작하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하게 되거든요. 시간을 만들어요.

박성태: 내가 술 한잔 안 먹더라도 운동은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에디터: 세 분 모두 술을 좋아하세요?

정창욱: 네, 저희 모두 좋아해요.


에디터: 복싱을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술을 더 잘 마실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죠. 더 먹게 되죠~

박성태: 전보다 체력이 좋아져서 술 먹는 것도 깔끔하고, 아마 복싱을 본격적으로 하면 지방간 이런 것 다 사라질 거예요. 현대인에게 탁월한 운동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에디터: 복싱을 하고 싶은데 주저하는 남녀 사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김정훈: 복싱을 하면 얼굴에 멍들고 다치고 그런 것이 아닐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무작정 링 위에서 스파링시키지 않아요. 일단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 기술을 배우나가고. 그러다 보면 '아~ 링 위에 올라가서 스파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요새는 여자들도 다이어트 복싱을 많이 하니까요.

박성태: 내가 정말 남자라고 생각하거나,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 분. 체력이 약하다거나, 살이 많이 찌서 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십시오.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단언합니다! 





Q Project TFT 신동혁 연구원 부부의 달맞이 고개 데이트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커플을 만났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 차도 컸다.
5년여간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고, 드디어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연애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라는 신동혁 연구원 부부의 데이트 현장에 따라나섰다.
글 김수진 사진 이용관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5월의 마지막 주,
부산 달맞이고개로 데이트를 나선
신동혁 연구원과 그의 아내 카오리
하시바(Kaori Hashiba) 씨를 만났다.
부부가 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그들에게
어느 곳인들 아름답지 않을까.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그들의 첫 만남이
궁금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자연스럽게 끌렸다고 할까요?
돌이켜보니 ‘우리 사귀자’라는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신동혁 연구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오리 씨가 아직 프리포즈도 못
받았으며 볼멘소리를 한다. 경상도에
오래 살아서 그런가 보라며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머쓱하게 넘어가는
그에게 오늘의 데이트가 프리포즈의
전초전이길 바란다.

캐나다에서의 로맨틱한 연애는 신동혁
연구원이 2012년 넥센타이어 입사로
한국에 먼저 들어오면서 ‘스카이프
연애’로 바뀌었다. 매일매일 영상 속
얼굴만 보며 보낸 시간이 1년여.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한국으로 오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한국으로 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이해심 많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 진짜
걱정되었던 것은 시부모님이었어요.
반대가 무척 심했거든요. 일본 사람인
데다 나이도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이해시키느라 남편이 고생
많았죠.”

꿈들이랑
달았대!



연상연하 부부의 로맨스

오늘 이들 부부의 데이트 콘셉트는 '달맞이고개' 제대로 즐기다. 해운대 인근에 위치한 달맞이고개는 부산 문화 · 예술의 중심지로 크고 작은 갤러리들과 멋과 맛을 갖춘 카페,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공간. 주말에는 아트 장터도 열려 볼거리가 풍성하다. 그중 키즈 편집숍과 베이커리, 레스토랑, 갤러리가 한곳에 자리한 에스플러스는 부부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기에 제격인 곳이다. 1층에서 5층까지 발길 닿는 족족 카오리 씨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거 신고 걸으면 너무 귀엽겠지?”

“날 닮은 딸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들이 좋겠지만, 딸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쌍둥이가 좋으려나?”

건물 5층에 위치한 에스플러스 갤러리에 들어서자 실과 바늘을 이용해 자수를 놓듯 천에 그려진 그림, 나무 조각 등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장을 찾는 것 말고도 부부의 취미는 다양하다. 함께 운동하기, 함께 맛있는

것 찾아다니기가 그중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자연이 주는 생명력이 좋아 서울이 아닌 부산, 그리고 다시 양산을 택한 부부에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트렌디한 레스토랑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일 터. 오세득 셰프의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꼭 데려가 준다고 대답하는 신동혁 연구원. 그는 아내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자상한 남편임에 틀림없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

해운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의 테라스에 앉아 있자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야근이 잦아 평일에는 누리지 못할 여유다.

“멀리 타국에서 온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죠. 주말에는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해요. 오늘 데이트 역시 아내를 위해 마련한 이벤트인데, 아내가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남짓.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는 부부는 입맛도 닳아가고 있다. 와규 대신 한우가, 간장게장과 양곱창이 훨씬 맛있다는 카오리 씨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는 찌개류와 된장파스타. 조만간 제대로 된 한식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사실 둘의 성격이 정반대예요. 길을 걷다 길거리 공연을 보면 저는 흥에 겨워 그 순간을 즐기는 반면, 남편은 남 보기 창피하니까 얼른 가자며 자리를 피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맛, 습관, 성격도 서로 닳아가리라 믿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서 남편을 맞이할 때가 정말 기쁘다는 카오리 씨와 언제 어디서나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신동혁 연구원, 서로 눈을 맞춰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감이 잔뜩 어려 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라고 속삭이며 잠자리에 든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져온다. 힘든 역경을 딛고 사랑하며 지내온 시간만큼,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 바란다. ¹⁰

힘든 역경을 딛고
사랑하며 지내온 시간만큼,
부부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 바란다.





스킨십 게임, 놀이에 사랑을 더하다

표현에 서툰 아빠들이 아이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같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스킨십 게임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보세요.

글 / 사진 김동권
(《아빠와 10분 창의놀이》 저자,
아빠와 함께하는 10분 게임
(www.monsterdad.kr) 운영)

아빠와 아이의 어색한 관계

섬세하고 자상한 엄마와 달리 아빠인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처럼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지도 못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엄마는 “어이구~ 그랬어요? 정말? 저런!” 하며 맞장구를 쳐주거나 기분을 잘 맞춰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터에 나가 함께 있는 시간이 엄마보다 적었던 저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빠 왔다”, “네”, “밥은 먹었니?”, “네” 아이와 저는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놀이는 ‘머리’ 아닌 ‘감정’이 중요

아이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거나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 같이 ‘놀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도한 놀이는 규칙이 복잡한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휴, 저도 다 알아요. 제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어렸을 때는 규칙이 조금 달랐는데...” 즐겁게 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설명서를 붙잡고 규칙에 대해 설명하다가 그만 신경질을 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놀이가 즐겁지 못한 이유가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해서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화를 내니, 이러한 성격을 놀이로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적이 담기면 아이들은 놀이를 ‘숙제’로 생각해서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명과 규칙’을 중요시하며, 놀이도 하나의 교육과 훈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머리’로 다가간 반면, 아이는 저와 ‘감정’을 나누길 원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스킨십 놀이

이후 아이와 놀아줄 때는 머리를 비우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뽕망치 등 간단하고 단순한 놀이를 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스킨십을 하자’고 생각하고는 복잡한 보드 게임은 멀리하고, 뽕망치와 재활용품으로 간단한 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뽕뽕이 복싱’입니다.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뽕뽕이를 두 손에 감아 글러브를 만들고, 아이와 복싱을 즐겼습니다. 얼굴이나 주요 부위(?)를 치지 않는다는 간단한 규칙만 정하고 서로 신나게 복싱을 즐겼습니다. 물론 어른인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살살 펀치를 날렸습니다. 한창 복싱을 하던 중 서로 몸이 엉켜 바닥에 쓰러졌고, 우리 둘은 한참 동안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놀이 덕분에 둘 사이의 대화도 술술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TV에서 야구 경기를 보았는데요~”, “그래. 네 팀이 이겨서 기뻐했구나!”, “아빠, 이걸 학교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그래? 그림이 많아서 재미있겠구나!” 아이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저도 가 급적이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놀이

스킨십 놀이 도구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뽕뽕이 복싱 이외에도 ‘몬스터 게임’이라는 스킨십 놀이가 있는데 달걀판과 탁구공, 뽕망치만 있으면 간단히 놀이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판에 유성매직으로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시하고, 1번부터 5번까지 각 고지를 정해 지그재그로 표시해줍니다. 그런 다음 각 고지 사이사이에 몬스터와 똥을 그려 넣으면 게임판이 완성됩니다.

각 고지를 거쳐 탁구공을 도착점에 옮기는 것이 게임 방법입니다. 몬스터 칸이나 똥 칸 혹은 게임판 밖으로 탁구공이 떨어지면 상대방에게 뽕망치로 엉덩이를 맞은 후, 그 자리에서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게임 순서는 한 사람이 목표 지점까지 탁구공을 다 옮긴 후 바꾸거나, 뽕망치를 맞을 때마다 바꾸는 걸로 정하면 됩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뽕망치를 맞을 때마다 순서를 바꿔 보세요.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 뽕망치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 모두가 게임 기회를 여러 번 얻을 수 있습니다.

아빠를 공식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게임이라 그런지 아이도 이 게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맞을 때마다 “으악!” 하고 리액션을 크게 했기에 무척 재미있어했습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스킨십을 나누다 보니 예전보다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빠들에게도 이 놀이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대화에 서툰 아빠라면 무언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이와 스킨십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하든,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든, 깊게 포옹을 해주고 뽀뽀를 해주든 뭐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서로 부대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즐기다 보면
아이도 아빠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게임 1 뽕뽕이 복싱

준비물 뽕뽕이, 청테이프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뽕뽕이를 버리지 말고 놀이 도구로 활용해보세요. 아빠와 힘쓰는 놀이를 자주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폭력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는 놀이입니다.

- 1 아빠와 아이 모두 동일하게 뽕뽕이를 손에 감아 글러브를 만듭니다. 아이 글러브를 아빠가 먼저 만들어주고 엄마가 아빠 글러브를 만들어줍니다.
- 2 실제 경기처럼 엄마가 심판이 되어 글러브를 검사해주세요.
- 3 아빠는 아이의 키에 맞춰서 몸을 웅크리고 경기에 임합니다.
- 4 신나게 복싱을 즐깁니다. 가급적 머리는 치지 않습니다. 아빠와 아이 둘 중 하나가 지쳐 쓰러지면 게임을 종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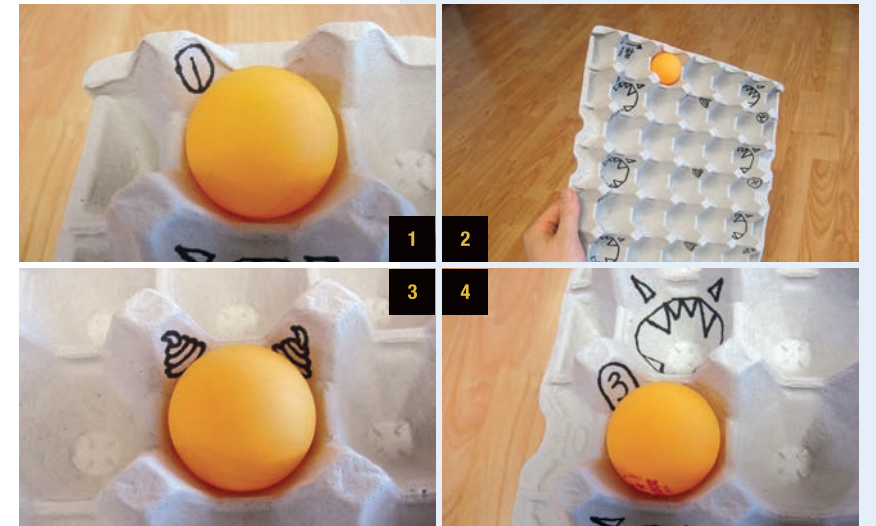
게임 2 몬스터 게임

준비물 달걀판, 유성매직, 탁구공, 뽕망치

종이 달걀판에 아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게임판을 만들어보세요. 몬스터와 뽕을 많이 그릴수록 게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고지 근처에 몬스터를, 정중앙 줄에 뽕을 그려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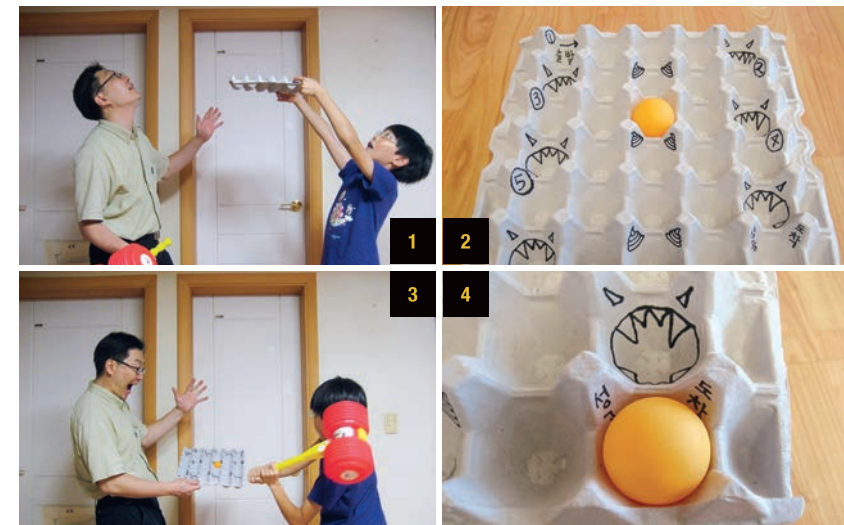
〈얇은 버전〉

- 1 달걀판 출발점에 탁구공을 올립니다.
- 2 달걀판을 기울이거나 흔들어 탁구공을 1~5번 고지로 순서대로 옮깁니다.
- 3 탁구공이 달걀판 밖으로 떨어지거나 몬스터 혹은 뽕 칸에 놓이면 뽕망치로 맞습니다(밖에 떨어지면 1대, 몬스터 칸은 2대, 뽕 칸은 3대).
- 4 뽕망치로 맞은 후엔 탁구공이 있던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 5 목표 지점에 탁구공이 도달하면 순서를 바꾸거나, 뽕망치를 맞을 때마다 상대방이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선 버전〉

- 1 공을 머리 위로 던졌다가 달걀판 위에 받습니다.
- 2 탁구공이 달걀판 밖으로 떨어지거나 몬스터 혹은 뽕 칸에 놓이면 뽕망치로 맞습니다(밖에 떨어지면 1대, 몬스터 칸은 2대, 뽕 칸은 3대).
- 3 '도착 · 성공' 칸에 탁구공을 놓으면 던진 사람이 상대방을 뽕망치로 10대 때립니다.
- 4 단, 아이가 혼자 탁구공을 던지기 힘들어하면 엄마, 아빠가 공을 던져주고 아이가 받게 합니다.㉞



PCR파트 조태수 사우 가족, 양산 공장 탐방기

아빠와 함께 타이어 여행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상기된 표정의 한 가족이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에
도착했다. 회사 이곳저곳을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둘째
성찬이와 그런 동생이
넘어질까 싶어 뒤에서
보호하는 첫째 수아. 상상만
하던 아빠의 일터가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으로 두
눈을 반짝였다.

글 김수진 사진 홍승모

친구야,
우리 아빠 넥센타이어 다닌다!

작년 겨울, 〈헬로우 넥센〉 편집부에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회사 시설 등을 견학해보고 싶다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사연이 담긴 엽서였던 것.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고,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넥센타이어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어요’라던 수아의 소원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이뤄졌다.

“안녕하세요!”

방문증을 건네는 직원에게, 휴게실에서 만난 아빠의 동료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수아가 의젓해 보였는지, 큰딸을 바라보는 PCR파트 조태수 사우의 눈길에 부드러워진다. 오늘 사보 촬영에 앞서, 아이들이 막연히 예상했을 아빠의 회사와 직접 맞닥뜨린 현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 당황하지 않을까 우려가 컸다는 조태수 사우. 그럼에도 수아가 보고 싶어 하고 원하는 마음을 알기에 결정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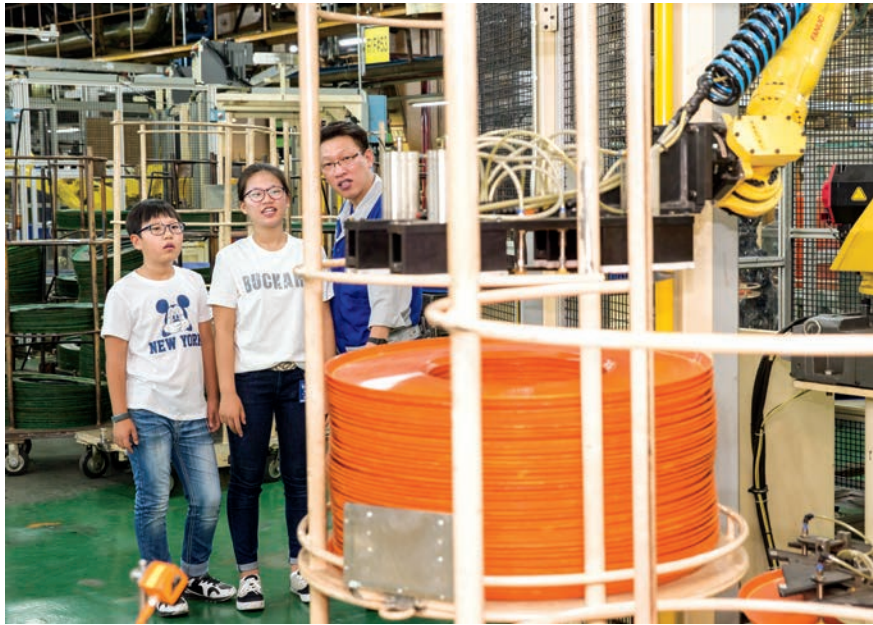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가는 제1공장 앞. 평소에는 보기 힘든 시설이지만, 오늘날만큼은 특별히 가까워서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니 신이 난 아이들이 아빠 팔에 매달려 발걸음을 재촉한다. 공장에서 아이들을 먼저 맞은 것은 커다란 기계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와 소음 그리고 고무 냄새다. 시끄럽다며 귀를 막는 성찬이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형클어트린 조태수 사우의 여러 생산 라인을 안내하며 성형 파트로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다.

“아빠, 이건 뭐야? 타이어 모양이 이상해.”

“이게 ‘그린 타이어’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어가 되기 전 모습이지. 아빠가 서 있는 이 기계에서 타이어의 모든 재료를 차례대로 붙여 만드는 거야.”

PCR파트에서 근무한 지 만 13년. 반제품 유닛들을 성형기 드럼에서 순차적으로 조립해 원통형의 고무복합체로 만드는 과정을 능숙하게 설명하는 아빠에게 아이들의 질문이 실 새 없이 날아들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조 사우가 팔을 걸어붙였다. 1, 2차 성형 공정, 그리고 에어를 넣어 부풀린 후 벨트(Belts)와 트레드(Tread)를 부착하는 과정을 선보인 것. ‘치이익’ 하고 에어가 빠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진지한 아빠의 시범에 아이들이 집중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내 남편

“아빠가 일하는 곳 잘 둘러봤어? 어때, 아빠 멋진 것 같아?”

제1공장 성형 파트를 전체적으로 둘러본 조태수 사우 가족에게 윤원국 PCR파트장이 다가와 살갑게 물었다. 성형 파트 외에 제2공장 견학 코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타이어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이 궁금했던 수아와 성찬이가 빨리 보고 싶다며 다시 아빠 팔에 매달린다.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들의 엄마이자 조태수 사우의 아내인 권선자 씨다. 3교대 근무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그간 마음에 걸렸지만,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과 남편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을 잇는다.

“와~ 로봇이다.”

와이어에 고무를 토핑(Topping)하는 비드 공정에 투입된 산업용 로봇을 보자마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공정을 수행해내는 거대한 로봇에 시선을 빼앗긴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장래 희망이 프로그래머, 해커일 정도로 컴퓨터에 관심 많은 성찬이에게는 로봇이 작동하는 원리가 신기할 수밖에 없다.

타이어 제조 공정별 안내판 앞에서 다시 조태수 사우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다가도 십수 년 동안 익숙해진 전문용어가 섞여 나왔다. “타이어는 크게 정련, 압출, 성형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거야. 원재료를 혼합해서 타이어용 고무를 생산하는 일이 정련이고, 이렇게 생산된 결과물을 길게 뽑아내서 자르고, 둥글게 만든 다음 타이어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아이들과 남편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요.

조립하는 것이 아까 아빠가 하던 성형이야.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가류를 거치면 타이어가 완성되는 거야. 가류? 음... 붕어빵 기계에 반죽을 넣고 찍어내듯이, 아빠가 만든 제품을 저 큰 기계에 넣어 뜨거운 열에 의해 찍어내는 거지.”

우리나라에 타이어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우뚱하며 ‘삼십 개? 오십 개?’라고 답하는 성찬이. 그런 성찬이가 귀여운 아빠는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오늘 회사에 데리고 오길 잘했다고 말한다.

“전부터 아빠 회사에 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오게 돼서 참 기쁘요.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일도 멋지게 하고 설명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최고!”

아빠는 일터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 오늘의 시간이 수아와 성찬이에게 가족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기회, 그래서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밑바탕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㉞



추억 안고 돌아온 문화

“복고에서 新풍이 분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복고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1990년대를 풍미한 가요와 패션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시대를,
누군가에게는 신선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글 이운정(문화 칼럼니스트) 사진 tvN <응답하라 1988> 공식 홈페이지



복고 바람의 시작은 어디일까

복고 바람이 끝도 없이 불고 있다. 2015년 초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는 대중문화계의 시계를 1990년대로 돌려놓았다. 1990년대 인기 가수들을 총동원해 무대에 올린 ‘토토가’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황금기였던 과거의 음악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상품임을 증명했다. 급기야 지난 4월, ‘토토가 시즌 2’에서 당시 최고 스타였던 잭스키스를 무대 위로 되살려놓는 기적을 펼치기도 했다. 복고 열풍을 타고 1980~90년대 인기 가수들이 과감히 컴백하기도 했다. 코요태, 변진섭, 지누션 등이 그 주인공이다.

tvN 드라마 또한 지난해 말 <응답하라 1988>에서 1988년부터 1994년의 시절을 회고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응답하라’의 모든 시리즈는 공중파 드라마를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일 정도로 성공해 추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었다. 이처럼 현재 가장 ‘핫’한 복고 시대는 1990년대다.

과거를 추억하는 복고는 새로운 창작과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아이였던 어른들의 과거 여행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고하고 웃음과 눈물을 기대하는 포맷은 예능 프로그램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015년 7월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등장한 ‘종이접기 선생님’ 김영만 아저씨의 경우가 그렇다. 어린 시절 TV 앞에 앉아 종이접기 아저씨를 따라 해본 경험이 있는 세대는 김영만 아저씨의 ‘우리 코딱지들’이라는 말에 열광했고 눈물을 흘렸다.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토토가’의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옛 시절의 스타를 찾아 다시 무대에 세우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넓게 보면 <복면가왕> 혹은 그에 앞선 <히트싱어>, 심지어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 같은 몇 년 전 프로그램까지 ‘이전 시대의 스타와 노래의 영광을 되새기고 추억을 소환한다’는 공통점으로 묶인다. 출판 문학계에서도 초판본 복고 바람이 예상치 않은 돌풍과 이변을 일으켰다. 윤동주, 백석, 정지용, 김소월, 한용운 등 거의 100년 전 시인들의 초판 북각본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이다. 소와다리 출판사에서 2015년 11월 출간한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의 초판 북각본은 10만 부 이상, 윤동주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1955년 증보판 북각본은 15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런 북각본의 열풍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로도 이어졌다.

“우리 때가 좋았지”

사실 복고 바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 40~50대들이 20~30대였던 때에도 ‘7080 바람’이 불었다. 1970~80년대 가요가 다시 주목받아 고정 쇼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했다. 패션 역시 ‘레트로’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과거의 유행을 좇았다. 말하자면 ‘복고’라는 말은 ‘돌고 도는 유행’의 한 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당대에 상당한 지출을 감수하고 문화 상품을 소비해온 주역층이 ‘좋은 시대’라고 추억할 만한 사춘기나 청년기의 문화를 다시 내놓았고, 소비를 자극하는 복고 문화 상품들이 잇힐 만하면 등장했을 뿐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1990년대 역시 ‘가요계 최고의 황금기’로 꼽히지만, 이는 그 당시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199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유달리 그런 것이다. 더 이전 세대에게는 1980년대가, 또 더 이전 세대에게는 1970년대와 1960년대가 지금처럼 순수함이 사라지기 이전, 문화에 애뜻함을 느낄 만한 황금기였을 것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아이돌이나 전자음악 위주의 노래에도 음악의 본질이 있다는 데 도저히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또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황금 시대’, ‘좋았던 음악’이라고 추억할 음악이 과연 무엇이겠는지를.

복고 바람이 가야 할 길

복고 문화 상품은 그것을 낳은 것으로 보는 어린 세대에게는 새롭고 참신한 느낌을 주는 힘이 있다. 이 세대가 복고 문화에 자극받아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복고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왜 1990년대인가’, ‘왜 1980년대인가’ 하는 것보다는 ‘복고의 대상인 문화가 어떻게 현재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슈퍼스타K>나 <K팝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성세대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새로운 버전으로 변신시켜 되돌려주는 기쁨을 주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몰랐던 명곡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노래를 통해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스타들을 양산했다. 문화와 예술은 늘 창조성을 자극받을 때 앞으로 전진해왔다. 창작은 언제나 새로움을 지향해야 한다. 복고의 유행이 단순히 돈이 될 만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㉞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PPT

얼마나 잘 다루고 계신가요?

직장 내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파워포인트 작성'이다. 각종 제안서나 보고서, 회사 소개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교육을 진행할 때도 널리 사용되는 만큼, 센스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해 자신의 기획력과 디자인 감각을 어필해보자.

글 양가희

파워포인트(이하 PPT)는 기획과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직장 내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나 이미지로 가득한 문서는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세련된 PPT를 만드는 팁과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을 소개한다.

다양한 사이트 활용

좋은 PPT는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픽토그램이나 인포그래픽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사물이나 시설, 개념 등을 심플한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픽토그램은 잘만 사용하면 PPT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픽토그램의 경우 상업적 용도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PT 프로그램 내 클립아트나 도형을 활용해 직접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이미 형태가 갖춰진 픽토그램을 다운받는 것보다 색상 변경이나 모양 구성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포그래픽은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달력, 텔

레비전 편성표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때로는 백 마디 설명보다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인포그래픽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로 Infogr.am(<http://Infogr.am>)이 대표적이다. 데이터만 입력하면 다양한 차트 디자인을 선택, 간편하게 인포그래픽을 완성할 수 있다. 이외 다양한 테마와 아이콘, 이미지 등을 갖춘 픽토차트(<http://piktochart.com>), 지도에 특화된 Chartsbin(<http://chartsbin.com>) 등도 유용하다. PPT 문서에 인용, 참고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사이트로는 인포그래픽스.kr(<http://info-graphics.kr>), 비주얼 다이버(www.visualdive.com), 조선닷컴 더 스토리(<http://thestory.chosun.com>) 등이 좋다.

PPT 기능을 활용한 디자인

즐거운 드라이빙 타이어 사용법

1. 출발 전 점검
2. 길들임 주행
3. 기상조건 확인
4. 요철 심한 곳에서 감속
5. 이상 시 정차

그림 1

그림 1의 '즐거운 드라이빙 타이어 사용법'과 같은 제목은 '굵게'만 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오각형 도형을 삽입하면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도형 안에 삽입된 텍스트 박스에 길이가 각각 다른 글자가 2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줄 간격을 넓히는 등 '균등 분할'과 '줄 간격'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디자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나의 큰 주제 아래 다양한 소주제를 한 눈에 보여주고 싶을 때는 도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림 2에서 숫자가 매겨진 작은 5개의 원과 텍스트는 크기와 색상, 적용된 효과가 동일하다. 이처럼 기존 텍스트나 도형에 적용한 효과를 다른 개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면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해보자. 기존에 어떤 효과를 설정했는지 확인하고 차례차례로 다시 적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림 2

도형의 간격, 위치를 정확하게 정렬하고자 할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개 이상의 도형을 동시 선택한 후 홈 메뉴의 '정렬' 도구를 클릭해보자. 정렬 도구 안에 있는 '맞춤' 메뉴로 도형의 간격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정렬 도구는 나만의 픽토그램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원하는 모양으로 도형을 배치하고 정렬 도구의 '그룹'을 클릭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도형을 만들 때 'Ctrl+방향키'로 도형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후 모든 슬라이드의 글꼴을 다른 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 슬라이드 수가 20장이 넘는 경우 일일이 설정을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럴 때 홈 메뉴의 편집 구역에 있는 '바꾸기-글꼴 바꾸기'를 이용해 모든 슬라이드의 글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⑩

Tip

PPT 필수 단축키 모음

자주 쓰는 기능을 모아 자신만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 이 도구 모음과 함께 단축키를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꼭 알아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단축키를 소개한다.

구분	내용	단축키
서식	서식 복사	Ctrl+Shift+C
	서식 붙여넣기	Ctrl+Shift+V
개체	개체 복사	Ctrl+D
	개체 직선 이동	Shift+클릭&드래그
	그룹 지정	Ctrl+G
	그룹 해제	Ctrl+Shift+G
	이미지 크기 확대/축소	Ctrl+Shift+방향키
프레젠테이션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 시작	F5
	현재부터 프레젠테이션 시작	Shift+F5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Ctrl+N
	새 슬라이드 삽입	Ctrl+M
	슬라이드 번호 이동	슬라이드 번호+Enter
기타	안내선 표시 · 보이기	Alt+F9
	눈금선 표시 · 보이기	Shift+F9



여름철, 말 못 할 고민은 이제 끝!

여름철, 누구나 한 번쯤 땀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땀 냄새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자.

글 조용선(청담오라클피부과성형외과의원 원장)

여름날의 불청객, 땀 냄새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쬰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다 혹은 산들바람이 솔솔 부는 산으로 떠나고 싶은 계절, 여름이다. 그러나 여름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 못 할 고민이 있는데, 바로 ‘땀 냄새’다. 몸이 아파서 나는 냄새가 아니기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만, 스스로 없어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얼굴이나 손바닥이 아닌 겨드랑이와 발바닥에서 유독 독한 땀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겨드랑이나 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땀을 생성하는 땀샘이 밀집된 곳이며, 땀이 잘 배출되지 않는 부위라는 것이다. 단순히 땀이 모인다

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땀 자체는 냄새가 없다. 땀이 많은 곳에서 세균이 번식하면 물질(Methylhexanoic acid, 메틸헥사노익산)이 생기는데, 그 물질에서 냄새가 난다. 즉 일시적으로 증가한 땀에 의해 세균의 활동력이 강해지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세균은 우리 대장에 있는 대장균과 비슷하게 피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니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땀 냄새는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과 세균의 합작품인 셈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땀을 없애거나, 세균을 없애거나!

땀 냄새 없애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땀샘 제거 시술 및 수술



수술이나 레이저, 초음파 등의 전문 의료 장비를 이용해 땀샘을 파괴하면 된다. 이런 방법은 겨드랑이 부위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효과가 다른 치료에 비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겨드랑이에 절개선을 넣고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은 통증이 있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잘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캐놀라(등근 바늘 주사)를 사용해 땀샘을 흡입하는 방법과 작은 바늘을 삽입해 땀샘을 파괴하는 방법, 초음파 등의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땀 배출 차단 약 도포



최근에는 땀구멍을 막는 바르는 약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클로라이드(aluminum chloride)’라는 성분이 땀이 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약은 데오도란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데오도란트는 단지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사 시술



주사 시술 방법은 보톡스라고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피부에 주사하는 치료법이다. 보톡스가 땀을 배출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원리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어, 여름이 시작되기 전 보톡스 주사를 맞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톡스는 단 한 번의 시술로 여름을 편히 보낼 수 있어 매우 인기가 많다.

네 번째,
위생 관리



세균을 없애는 방법 중 개인 위생 관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외출 후에는 샤워하는 습관을 기르고, 의복이나 신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항균 비누를 사용해 냄새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에 국소 향생제를 사용해 세균 번식을 막거나 겨드랑이 부위를 제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털이 없어진다면 땀 축적이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땀 냄새는 병은 아니지만 불쾌감을 주는 만큼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올여름은 땀 냄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면 ‘돈’ 되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허리끈 조여매고 뼈뚫하게 살아가는 직장인에게 도움 되는 정보는 없을까?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유럽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혜택 대상이나 기간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어 구석구석 숨어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직장인 교육비와 아이 양육비까지,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글 정재혁(경제 · 경영 전문 인디라이터)

평생 학습 시대 필수 요건, 자기계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책을 덮어버렸다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공부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해보자. 정부에서 직장인 교육비를 환급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분류한다.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의 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 직원들에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으로 일하는 근로



자라면 중소기업 직원들과 똑같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이가 45세를 넘으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 밖에 이직 예정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 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자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라고 불리는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 www.hrd.go.kr)에 접속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빠른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간 30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검색

근로자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교육받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한다. 아무 학원에서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에 대해서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지역별·주제별 교육 과정을 검색해 자신이 받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으면 된다. 교육비 지원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개인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교육비를 환급받는 경우와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받는 경우가 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지원금

산부인과를 찾은 주부 K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임신 6주 차라고 한다. K씨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지만 당장 병원비 들어갈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런 임신부를 위해 정부는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임산부의 경우 50만 원, 쌍둥이나 세 쌍둥이 같은 다태아 산모에게는 70만 원, 18세

이하 산모에게는 12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 후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등이 기다리고 있다. 양육수당은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24개월은 15만 원, 24~84개월은 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보육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만 0세는 41만 8천 원, 만 1세는 36만 8천 원, 만 2세는 30만 4천 원, 만 3~5세는 22만 원이다.

지원금 종류 및 사용법

임신과 출산 지원금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체크카드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체크카드처럼 지원 금액 안에서 분만비를 포함, 출산과 관련된 각종 진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몸조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빠듯한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아이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금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서비스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결제 요청 문자를 통한 ARS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보육료 지원 기능을 추가하면 된다.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아이 양육의 고충은 단순히 비용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주변에 아이를 잠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약속을 잡거나 간단한 불일도 제대로 보기 힘들다. 이런 엄마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보육 서비스 한눈에 보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집 또는 직장과 가까운 보육기관에 아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정 기관에 다니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만 해당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예약하거나 전화(1661-9361)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기관과 날짜, 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간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필요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아이의 연령이나 돌보는 방법 등에 따라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등의 돌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



육아 종합 서비스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지원센터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 보육 및 가정 양육 상담, 일시 보육 서비스,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교재 및 교구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⑮

※ 시간당 이용 금액 기준 정부 지원 금액(표)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및 종합형		영아종일제 및 보육교사형
		A형 (’09.11. 이후 출생)	B형 (’08.12.31. 이전 출생)	
		월 200시간 기준		
		정부 지원 금액		
가형	60% 이하(263만 5,000원)	4,875원	4,225원	91만 원
나형	85% 이하(373만 3,000 원)	2,925원	—	65만 원
다형	120% 이하(527만 원)	1,625원	—	39만 원
라형	120% 초과(527만 원)	—	—	—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시간당 3,250원이 추가된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 금액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Tip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유아(보육기관에 다니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보육기관에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 시간 및 금액

- **맞벌이 가구** 최대 월 80시간, 시간당 1,000원(정부 지원 3,000원)
- **전업주부** 최대 월 40시간, 시간당 2,000원(정부 지원 2,000원)
※ 단, 아이사랑카드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지불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만 3개월~12세 이하 가정

지원 내용 집으로 찾아오는 1:1 아이돌보미. 아이의 나이나 돌보는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 및 금액

-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연 480시간 지원,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시간제(6,500원/1시간), 종합형(8,450원/1시간)
- **만 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영아** 월 120~200시간 지원,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영아종일제(6,500원/1시간), 보육교사형(7,800원/1시간)

이번 사보 활동에 참여해보니



팀스토리
영업전략팀 전형주 사원

청량감 넘치는 가평에서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수상레저와 번지점프를 즐겼습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탁 트인 청평호에서의 하루는 팀으로서도 저로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번지점프의 짜릿함은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보 촬영으로 저를 포함한 팀원 모두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넥센 가족 여러분도 수상레저를 통해 삶을 재충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스토리
영업전략팀 김민정 사원

〈헬로우 넥센〉의 배려 덕분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름호 사보 촬영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케팅팀에서 분할되어 새롭게 태어난 영업전략팀의 팀워크를 다지고 잠시나마 사무실에서 벗어나 업무의 피든 때를 벗고 팀원 모두 웃음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팀의 즐거웠던 시간만큼 사보에 고스란히 잘 담겨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여름호 사보가 발간되길 기대합니다.

팀스토리
영업전략팀 최규현 대리

이번 사보 체험은 제가 입사한 후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과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용무로 새로운 환경에서 체험하며, 즐기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팀원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제공해주신 〈헬로우 넥센〉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멘토 앤 멘티
동부산지점 송현영 사원

바쁜 업무로 인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멘토 앤 멘티’ 촬영이 이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근교나 외곽에 나가 대화도 하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 해피데이
Q Project TFT
신동혁 연구원

처음 사보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땐 제가 워낙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역시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사진 촬영도 하고, 무엇보다 전망 좋은 식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하다 보니 연애 초 설레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우분들도 참여하신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참여하고 싶네요!

아빠 탐구생활
PCR파트 조태수 사우

말로만 듣던 아빠 회사에 직접 와보니, 아빠와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네요. 아빠 된 입장에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제가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셔서 〈헬로우 넥센〉에 감사드립니다.

“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회사, 팀 내 소식 전하기
- 팀/파트, 선후배와 체험 코너
- 부부 또는 자녀 동반 가족 데이트
- 사우 자녀의 부모 직장 탐방
- 사내 직원 기고 코너: 카&타이어
- 대리점 참여 코너: 타이어테크 소개

〈헬로우 넥센〉을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에서 넥센소식지 – 독자게시판 및
우편엽서, 이메일(hellonexen@nexentire.co.kr)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퀴즈 정답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퀴즈 당첨자는 7월 중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서
넥센소식지 – 헬로우 넥센 사보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055-370-4118 hellonexen@nexentir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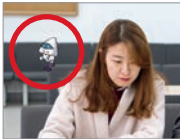
”

〈헬로우 넥센〉 곳곳에 숨은 넥세니를 찾아주세요! (총 3곳)



지난 호 정답

19p



29p



49p



퀴즈 당첨자

강주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황은미 서울 중구 통일로
김형규 부산 북구 금곡대로
이지영 대전 서구 관저동로
성건자 경남 창원군 창녕읍

이숙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천화영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김재성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김지용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이민지 경남 김해시 장유면